



CONTENTS

2018 MARCH VOL.07



4

여는 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때가 바로 봄

6

Essay

설렘과 기다림의 3월, 첫 인연의 소중함
조원표 경기 부천 소안초 교사

8

Inside Out

봄맞이 할 준비, 됐나요?
봄을 부르다

10

Special Interview

공간의 이해로 대중과 소통하다
유현준 홍익대 건축학과 교수

16

Interview

일곱 빛깔이 함께 빛나는
교실을 꿈꾸다
박병우 경기 시흥 군서초 교사

20

아름다운 동행

나이와 경력을 뛰어넘는 우정을 나눕니다
조아라 & 장제윤 서울 양천중 교사

26

먼 나라 교육 편지

안데스의 희망을 만나다 - 페루 모케구아
백상아 경남 진주 집현초 교사

30

트렌드 Go Go

'비엔 비에이르(Bien-Vieillir)
시니어의 존재 미학

32

네오필리아

너를 딸기딸기해
딸기에 대한 모든 것

34

브랜뉴 여행

무사들이 건축한 거대한 성의 왕국
인도 라자스탄주 조드푸르

40

아는 공간

골목길의 부활,
과거와 현재가 따뜻하게 공존하다
공주 제민천 문화거리

44

문화 캘린더

이달의 공연, 전시



46
재테크 팩토리
 새내기 직장인을 위한
 재무 설계와 투자 포트폴리오

48
알쓸돈팁
 알아두면 유용한
 은행 거래 서비스 100% 활용법

50
The-K Focus
 '내 인생의 꽃은 바로, 나'
 자서전 출간기념회

54
The-K Family
 사랑살랑 조금 이른 제주의 봄, 초말로 좋수다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

58
The-K News
 한국교직원공제회 및 출자회사 소식

61
독자 이벤트
 3월 즉석 당첨 이벤트

62
The-K Info
 한국교직원공제회 주요 서비스 안내

웹진



안드로이드 앱



아이폰 앱



<The-K 매거진>은 웹진과 모바일앱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www.thekmagazine.co.kr

발행인 문용린
발행처 한국교직원공제회
 서울시 영등포구 63로 50(여의도동 60)
www.ktcu.or.kr
발행일 2018년 3월 1일

편집
기자 정수철 jsh@swadcom.co.kr
객원 기자 이경희 이유선 정은주
교열 박혜경

디자인
아트 디렉터 서희지 seo@swadcom.co.kr
디자이너 김진이 kj2@swadcom.co.kr

사진
포토그래퍼 한상무 김희진
사진 자문 유병용 디지털사진연구소 사티

법률 자문 김병철(문장종합법률사무소)
애플리케이션 제작 (주)아이원기술
제작 인쇄 (주)성우에드컴 02-890-0900

<The-K 매거진>은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발간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The-K 매거진>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The-K 매거진>의 공식적인 견해
 가 아니라 필자의 생각을 나타낸 것입니다. <The-K 매거진>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사전 동의, 허락 없이 무단 도용할 수 없습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콜센터 1577-3400
 보험콜센터 1577-3993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때가 바로 봄

창문을 시원하게 열어본 적이 언제였을까요.
 꿈꿈 언 하늘에 마음마저 얼어붙은 시간,
 아직 몽우리도 피지 않은 꽃나무 아래를 서성이며 봄을 기다렸습니다.

더디게 오는 봄이 야속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고개를 돌리면 늘 봄이 있었다는 것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 시간, 손에 이룬 게 하나도 없던 그 시절에도
 주변에는 선물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고마운 존재들.
 그들이 모여 봄빛을 선물해주었죠.
 굳은 마음을 툭툭 건드리며 힘찬 응원과 설렘을 안겨주었습니다.

이해인 수녀는 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때가 바로 봄이라고.”

그렇습니다. 당신이 바로 봄입니다.
 당신의 작은 격려가,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었던 마음을 녹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당신에게 선물하고자 합니다.
 3월의 시작, 꽃보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봄의 꽃씨를 선물하려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봄이 되고자 합니다.

설렘과 기다림의 3월, 첫인연의 소중함

어릴 적 계절의 흐름에 따라 자연이 주는 아름답고 향기 넘치는 ‘뭇’을 먹으며 자랐다. 도시에서 오랫동안 살아오면서도 해 질 녘 석양에 걸친 아름다운 저녁노을과 오월의 뺨꼭새 울음소리, 물총새가 물고기를 사냥하는 모습 등을 연상하며 향수에 젖을 때가 많았다.

그래서인지 아파트 1층에 산다. 남들은 선호하지 않지만 흙냄새도 맡고, 흙을 밟는 정취도 느끼는 등 아파트 1층에 사는 것이 내심 즐겁다.

봄이 되면 주민들에게 꽃의 아름다움을 선사하고픈 마음에 시장에서 값싼 꽃을 사다 심기도 하는데, 아침저녁으로 열심히 물을 주며 가꾸는 것이 여간 손이 많이 가는 게 아니다. 그러나 꽃을 심고 얼마쯤 지나면 작은 정원이 형성되고, 어디선가 벌과 나비가 이 꽃 저 꽃을 날아다니며 꿀을 사냥하는 모습이란... 상상만으로도 행복하다. 눈으로 그 광경을 직접 보고 있노라면 참으로 평화롭다. 그 재미는 아는 사람만이 알 것이다.

이따금 벌과 나비 말고도 찾는 이가 있다. “1층 아파트 화단에 꽃이 있어 참 좋네요”라는 인사말을 건네는 이웃들이다. 그들이 건네는 말에 괜스레 기분이 좋아 나도 모르게 피식 웃고 만다. 꽃의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자연스레 이웃 간 소통이 이루어지는 게 큰 보람이다.

꽃이 화려한 이유는 수분을 도와줄 곤충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리기 위해서라고 한다. 게다가 꽃은 수분을 성사시켜준 매개자들에게 꿀을 제공한다. 즉 꽃과 곤충은 서로 풍요로운 공생을 한다. 동식물의 지혜를 보며 우리도 이 같은 혜안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자주 해본다.



최근 스마트폰 만능 시대가 열렸다.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못할 게 없다. 언제부터인가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많은 사람이 스마트폰에 몰입해 있는 광경을 흔히 보게 된다. 이제는 소통의 대상이 스마트폰이 되어버린 것이다.

얼마 전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의 장단점을 묻자 한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다.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면 인간 소외 현상으로 우울증에 걸릴 수 있어요.” 초등학생답지 않은 대답에 깜짝 놀랐다. 아이들이 하교한 뒤 커피 한잔하면서 내 모습을 돌이켜봤다.

‘나는 얼마만큼 주변 사람들과 따뜻한 인간미를 나누며 살고 있을까? 매일 만나고 헤어지는 아이들과 진정으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소통하고 있을까?’

우리가 사는 우주 삼라만상이 다 그러하듯 우리 삶도 인연이라는 소중한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그러나 빈틈없이 치밀한 그 끈을 우리는 ‘인연’이라 부른다. 매일같이 끊임없이 만나고 헤어지며 인연을 맺는 우리이기에 첫 출발이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3월은 1년을 위한 골든 타임이다.

3월에는 눈 녹은 산골짜기에 매화꽃이 핀다. 봄의 전령인 매화꽃처럼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는 봄은 꿈과 희망 그리고 생명력이 넘치는 시간이다. 미래의 꿈과 희망을 꼭 쥐고 환한 웃음으로 다가오는 어린 새싹들이 떠오르는 해를 재촉하며 아침을 환하게 비추는 시간이 기다려진다. 그래서 아침맛이로 하이파이브를 한다거나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준다. 하루를 시작하는 첫순간이 소중하기 때문이다.

‘출탁동기(啣啄同機)’. 병아리의 부리질과 어미 닭의 부리질이 같은 순간에 이루어질 때 비로소 병아리는 껍질을 깨고 밝은 세상으로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이처럼 교사와 학생 사이에 인격적인 만남과 충분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교육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

아름다운 봄꽃이 봄의 향연을 펼치고 있다.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여린 봄꽃이 성장으로 다가선다. 봄이 봄일 수 있는 것은 추운 겨울을 이긴 뒤 어둡고 두꺼운 지표를 뚫고 싹튼 새싹이 있기 때문이다. 또 그런 새싹을 소망하는 우리의 간절함이 있기 때문이리라. 설렘과 기다림 그리고 새로운 희망이 기다려지는 3월을 만끽하며 오늘도 모든 교육 가족이 자신만의 꿈을 갖고 힘차게 하루를 출발했으면 좋겠다.

조원표

경기 부천 소안초등학교 교사. 지금까지 200여 회의 글쓰기 공모전에 도전해 여러 차례 수상을 했다. 지난해 한국예총 예술세계 수필 부문에 기고한 <스마트폰에 빠진 남녀노소>를 통해 등단했다. 현재 대한민국정책기자단, 교육부 행복한 교육 명예기자, 부모공감 서포터즈 등으로 활동 중이다. 올해는 지금까지 수상작을 모아 수필집을 펴낼 계획이다.



봄맞이할 준비, 됐나요? 봄을 부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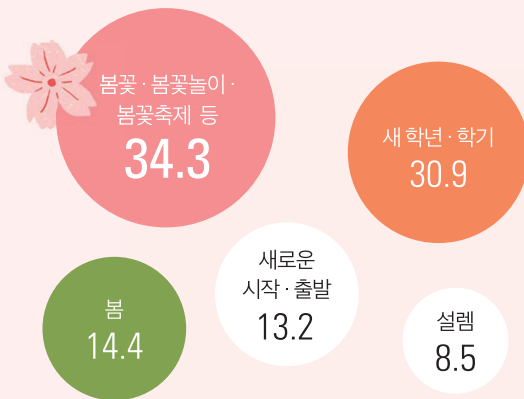
시린 겨울이 가고 드디어 봄이 옵니다.
겨우내 웅크리던 새싹들이 고개를 빼꼼 내미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봄이 오고 있습니다. '봄'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회원들이 생각하는 '봄의 이야기'를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봅니다.

기간 2018년 2월 1일 ~ 4일
방법 e-mail을 통한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 설문조사
대상 전국 공제회원 1533명

성별	남성	33.2%
	여성	66.8%
연령	20대	9.3%
	30대	32.7%
	40대	28.2%
	50대	20.7%
	60대 이상	9.0%
직업	교원	62.4%
	비교원	37.6%
	유치원	2.8%
근무하는 직장	초등학교	27.7%
	중학교	12.5%
	고등학교	14.8%
	대학교·병원	23.5%
	교육연수·행정·연구기관	6.8%
	기타	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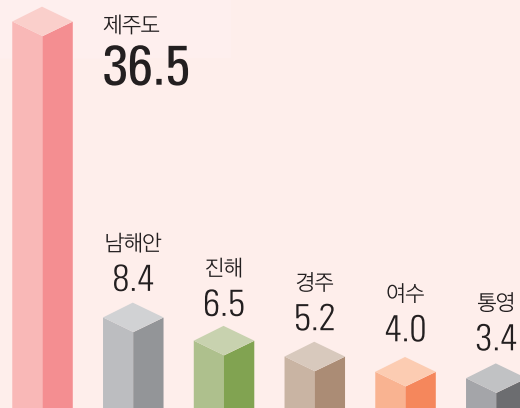
(단위: %)

**Q. '3월' 하면 가장 생각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유롭게 3가지를 적어주세요. (주관식)**



기타 입학생/입학식 7.8, 여행 6.6, 따뜻함/따스함 6.5, 새싹 5.6, 봄바람 3.1

Q. 봄을 맞아 가고 싶은 국내 여행지는 어디입니까? (주관식)



기타 부산 2.1, 강릉 1.7, 하동 1.5, 지리산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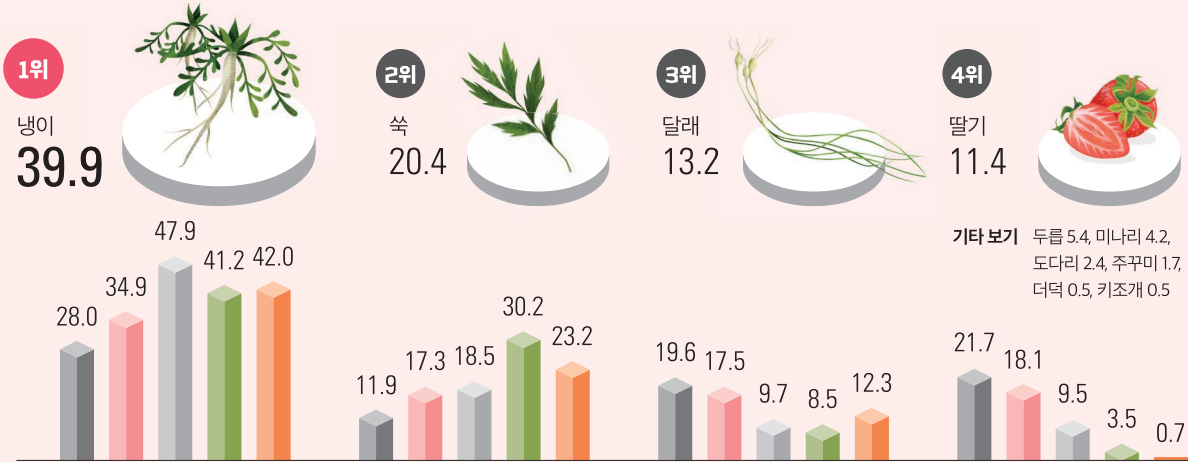
Q. '봄' 하면 떠오르는 노래는 무엇입니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1. 벚꽃엔딩 - 버스커버스커	62.2	62.7	49.8	25.2	10.1
2. 봄봄봄 - 로이킴	12.6	18.5	21.5	8.8	3.6
3. 봄치녀 - 가곡	0.7	3.2	6.0	16.0	26.1
4. 목련화 - 가곡	0.7	0.6	4.4	10.4	18.1
5. 산 넘어 남촌에는 - 가곡	0.7	0.4	1.6	8.5	1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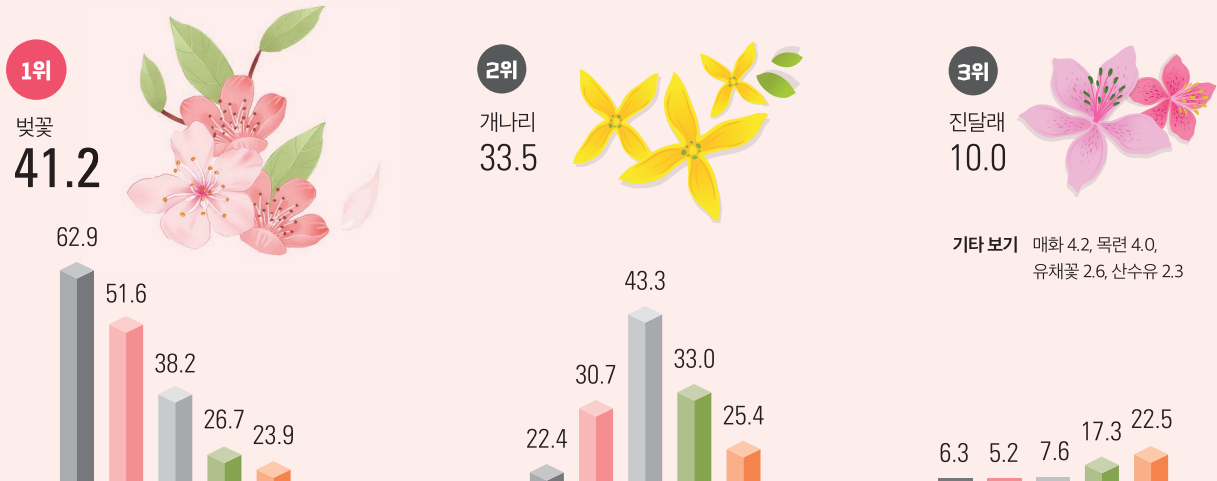
기타 보기 봄이 오는 길 - 박인희, 봄날은 간다 - 김윤아,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 이문세, 봄, 사랑, 벚꽃 말고 - HIGH4&아이유, 사랑은 봄비처럼 이별은 겨울비처럼 - 임현정, 봄비 - 박인수, 봄이 좋다 - 10cm, 봄날, 벚꽃 그리고 너 - 에피톤프로젝트, 우연히 봄 - 로꼬&유주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이상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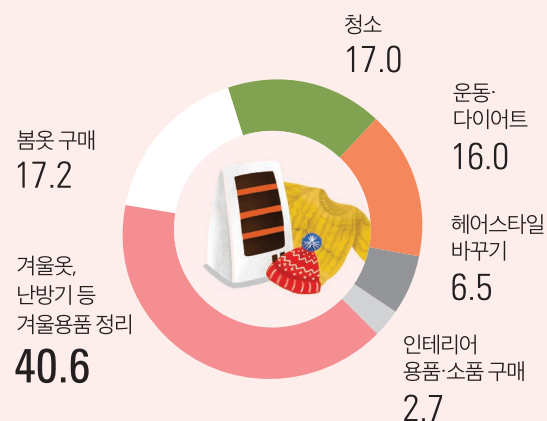
Q. '봄' 하면 떠오르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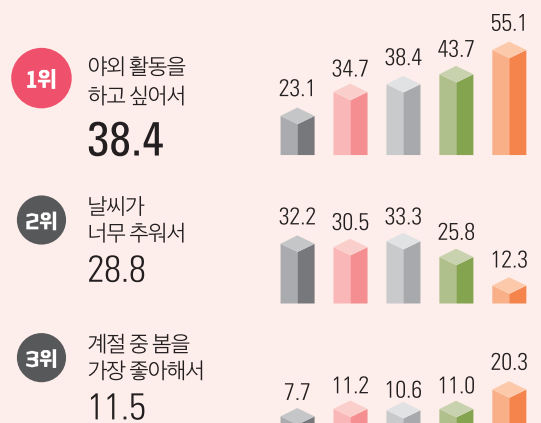
Q. '봄'을 대표하는 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Q. 봄을 앞두고 가장 먼저 준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Q. 봄이 기다려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간은 바로 거울이다.” 공간을 사람을 비춰 보는 거울로 말하며 공간을 예찬하는 이가 있다. 바로 유현준 홍익대 건축학과 교수다. 서울 논현동 어느 낮은 건물에 자리한 유현준건축사사무실, 그곳에서 ‘건축가’ 유현준을 만났다. 그의 첫인상은 차분했지만 밝았고, 겸손했지만 당당했다. 이 같은 매력은 ‘건축’에 대한 확고한 소신이 바탕이 된 자신감에서 묻어나는 것이었다. 그와 공간과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HYUN
JOON

공간의 이해로 대중과 소통하다

유현준 | 홍익대 건축학과 교수

공간의 다양성을 이야기하는 사람

유현준 교수가 대중에게 이름을 널리 알린 것은 여러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이른바 ‘학력 캄패’로 화제를 모은 것에서 시작되었다. 특히 각 분야의 전문가 5명이 함께 여행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tvN 예능 프로그램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잡학사전>(이하 <알쓸신잡>) 시즌 2에서는 전문 분야의 지식을 바탕으로 한 소신 있는 발언에 특유의 재치를 더함으로써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를 모으기도 했다. 최근 ‘연예인’으로서 관심과 인기를 얻고 있다는 말에 유 교수는 크게 웃었다.

“예전에도 예능이 아닌 다른 프로그램에 출연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제 삶이 이렇게까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이번엔 좀 당황스러울 정도로 화제가 됐네요. 예전보다 100배 줌?(웃음) <알쓸신잡> 녹화는 현재 모두 끝났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죠.”

겸손한 말과 달리 ‘유현준’이라는 이름은 유명 포털 사이트의 검색어 순위에 올랐고, 여러 방면에서 그를 찾는 소리는 더욱 커졌다. 그가 방송에 출연한 이유는 확고했다. 방송을 통해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것. 그것은 바로 자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대중과 함께 나누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유 교수의 ‘건축과의 인연’은 언제부터였을까. 그는 문과에 소질이 없다고 느껴 이과에 진학한 때라고 말한다. 잘하는 과목을 몇 가지 모아 보니 ‘건축설계’였다고. 당연히 그만두고 싶은 순간도 있었다. MIT에 다니던 시절 건축가라는 직업이 하찮아 보이기도 했는데, 이유는 단순했다. 당시 드라마 <모래시계>의 인기에 힘입어 검사들이 멋있어 보였지만, TV 속 유명한 사람 중에는 건축가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잠시 방황의 시간을 보낸 그는 곧 마음을 고쳐먹었다. 당시 참가한 공모전에서 친구만 붙은 것이 계기였다.

“아, 지기 싫더라고요. 정말 건축에 있어서도 지기 싫었어요. 수학을 못할 때는 괜찮았는데, 미술에서 지는 것은 정말 싫더라고요. 그때 건축을 해야겠다는 신념이 생긴 것 같아요. ‘이것만큼은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 말이에요.”

YOO





“학교에서도 물리적인 편안함과 안도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학생들은 인격을 갖춰나가야 하는 시기인데, 그런 만큼 휴식을 취할 공간이 필요하죠. 그곳에서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고 꿈을 키워나가야 해요. 그래야 올바른 인격을 가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ARCHITECT



그 후 건축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했다. 이미 MIT에서 석사를 마쳤지만 다시 건축설계 전공으로 석사 과정을 밟았다. ‘학력 깡패’라는 별명이 붙을 만 했다고 말하자 그는 큰 웃음과 함께 손사래를 쳤다.

“좀 잘못된 얘기에요. 제가 그런 대학들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것도 아니고… 다른 분들이 보면 웃으실 수도 있어요.” 별명이 무색할 만큼 그는 그저 건축과 관련한 공부가 조금 더 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공간의 변화가 곧 새로운 교육의 시작

유현준 교수는 건축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다양한 시선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의 말에 따르면, 건축 구조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은 상상외로 다양했다. 우리나라의 시대적 변화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아파트를 비롯해 대부분의 공간이 굉장히 폐쇄적이고 네모반듯하게 바뀌었다. 대가족이 주를 이루던 1970~1980년에는 대부분의 집에 마당이 있었고, 많은 시간을 동네 골목과 놀이터에서 보냈다. 그러나 지금은 낮과 밤이 언제 바뀌는지, 사계절의 풍경이 어떠한지 모른 채 지나칠 때가 많다. 이는 학교도 마찬가지다. 그는 우리나라의 교과목은 다양해 건축설계를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배움의 공간인 학교는 그렇지 못하다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우리나라 아이들은 교도소 같은 공간에서 교육을 받고 있어요.” 방송 중 유현준 교수가 한 말이다. 아이들의 배움터인 학교와 범죄자를 수용하는 교도소. 쉽게 연관 짓기 어려운 두 단어였다. 이 말은 곧 화제가 됐고, 정치권에서는 이를 쟁점화하기도 했다. 하지만 유현준 교수의 눈에 학교와 교도소의 구조는 크게 다르지 않다. 이유를 묻자 분명한 어조로 답했다.

“학교와 교도소, 두 공간의 건축설계를 보면 참 똑같아요. 담장으로 둘러싸인 곳에 운동장 하나, 칸칸이 나뉜 교실. 심지어 식사를 식판에 받아서 먹는 것까지도 똑같죠. 설계 면에서 보면 학생들은 12년간 교도소에 갇혀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학교는 학생들이 자연을 접할 기회가 많은 곳이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하지만 현재 학교 건물을 보면 아이들이 자연을 만날 시간이 절대 부족하다. 학교는 아이들이 오랜 시간을 보내는 배움의 공간이자 교직원들이 하루 종일 일하는 일터다. “주거 환경과 마찬가지로 학교에서도 물리적인 편안함과 안도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운동장 하나 있다고 다 졌다는



전남 신안군 압해읍 종합복지회관. The void. ©박영체

생각은 잘못 됐죠. 학생 시절은 인격을 갖춰나가야 하는 시기인데, 그런 만큼 휴식을 취할 공간이 필요해요. 빈 교실이 있다면 부서서 테라스라도 만들어야 합니다. 그곳에서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고 꿈을 키워나가야 해요. 그래야 올바른 인격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학교에서 대부분 시간을 보내는 교직원에게도 마찬가지다. 더불어 집과 일터에 사적인 외부 공간이 존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일터에도 외부 공간이 부족해요. 일하다가 바깥 공기를 쐬고 싶어도 갈 수 있는 곳이 고작 옥상밖에 없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계단을 이용하지 않고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죠. 그런 공간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사적인 외부 공간이 필요한 이유로 그는 인간의 유전학을 이야기했다. 인간은 유전적으로 자연에서 진화한 동물이며, 자연을 만나는 외부 공간이 없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연은 1년 열두 달 변화하잖아요. 계절과 날씨에 따라 해의 입사각도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실내 공간에서 살아요. 변화가 부족하죠. 그만큼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연과 분리되어 산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좋은 건축이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 고리를 만드는 것

이처럼 유현준 교수는 자신만의 신념과 철학으로 건축설계를 진행한다. 그 결과 지난해 ‘세계 건축가 어워즈(International Architecture Awards)’에 이름이 오르는 영예를 안았다. 이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미국 시카고 아테네움 건축디자인박

물관(The Chicago Athenaeum: Museum of Architecture and Design)이 매년 전 세계 건축과 디자인 분야의 우수한 작품과 작가를 선정해 시상하는 상이다.

“감사한 상이죠. 하지만 큰 상은 아니에요. 많은 사람에게 주는 여러 상 중 하나입니다. 그래도 의미는 있다고 생각해요.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도에 지은 복지관으로 이 상을 받았는데, 여러 면에서 좋게 봐주신 것 같아요.”

2013년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압해도에 설계한 종합복지회관. 그는 이 작품으로 2016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최우수상을 비롯해 올해 2월 ‘독일 디자인상(German Design Award)’도 수상했다.

‘압해도 목욕탕’이라고도 불리는 이곳은 1층에는 경로식당, 2층에는 공중목욕탕, 3층에는 장애인지원센터와 노인쉼터가 있는 종합복지회관이다. 오로지 마을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공공 이익 측면에서 만들어졌다.

“압해도에는 노인이 많이 사시는데, 어르신들 집에는 목욕탕이 없어요. 복지회관은 그분들이 쓰실 공중목욕탕과 식당 등을 마련한 공간이죠. 젊은이가 없는 데다 인구밀도도 낮아서 마을회관에 모여서 식사를 하시거든요. 이스라엘의 키부츠(Kibbutz; 이스라엘의 공동체 생활 형태)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유 교수는 자신이 지은 건물을 가끔 방문해 둘러본다.

“얼마 전 압해도에 가 보니 사람이 적어서 목욕탕을 요일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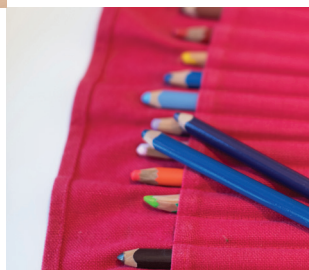
운영하더라고요. 안타까웠죠”라는 말에서 그가 사람을 얼마나 생각하고 그들과 소통하며 건축설계를 하는지 느껴졌다.

대중과의 소통, 변화의 시작

2015년 그는 건축가로서 도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담은 책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를 출간했다. 인간이 자신들이 만든 도시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 열다섯 가지의 인문학적 시선으로 바라본 책이다. 앞서 몇 권의 책을 출간한 그지만, 이 책에는 건축에 대한 철학이 한껏 담겨 있다.

“건축가의 시선에 인문학을 더해 도시를 읽은 책입니다. 건축가는 설계를 하는 데 인문학 반, 공학 반을 담죠. 특히 철학 공부도 많이 하고요.”

책이 인기를 얻으면서 그는 작가로서 북 콘서트를 진행하기도 한다. 서점을 중심으로 넓지 않은 공간에서 작가와 독자가 만나는 것에 매력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기회가 된다면 앞으로 계속하고 싶다는 바람도 밝혔다. 최근에는 전작에서 못다한 이야기를 모아 새로운 책을 준비 중이다. ‘도시들이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담은 예정이다. 유현준 교수는 말한다. 건축가는 매년 발전해야 한다고.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을수록 새로운 경험이 축적돼 건축물에 더 좋은 것을 반영할 수 있다고. 많은 건축가가 50세를 전후로 좋은 작품을 내놓듯이 50세가 된 그에게도 올해가 ‘원년’이 되길 바란다.





“자연은 1년 열두 달 변화잖아요.
 계절과 날씨와 해의 입사각도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실내 공간에서 살아요.
 변화가 부족하죠. 그만큼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연과 분리돼 산 게
 얼마 되지 않은 만큼 개선되었으면 좋겠어요.”

일곱 빛깔이 함께 빛나는 교실을 꿈꾸다

박병우 — 경기 시흥 군서초 교사



속명처럼 다가온 화두 ‘다문화’

다들 집으로 향하는 하교 시간, 군서초 신문부 학생들은 기대에 들뜬 표정으로 삼삼오오 도서관에 모여든다. 지난 1년간 본인이 직접 취재, 촬영, 기사 작성까지하며 한 면 한 면 채워나간 학교 신문이 드디어 발간되는 날이기 때문이다. 말끔하게 인쇄된 신문을 넘기며 토막 기사 하나까지 유심히 살펴보는 학생들 사이에서 담당 교사인 박병우 교사의 모습이 눈에 띈다.

“2017년 1학기 때 학교 신문 발행을 기획하고 학생들을 모집해 1년간 신문을 만들어왔습니다. 저나 아이들이나 신문 제작은 처음이라 기초부터 하나하나 배우며 만들다 보니 정식으로 인쇄된 첫 번째 신문이 오늘에야 나왔네요.”

학교 신문 기획부터 학생 지도와 첫 신문 발행까지 바쁜 한 해를 보낸 박병우 교사가 지난해 관심을 기울인 또 다른 분야는 ‘다문화’. 시흥시의 초등학교로 첫 발령을 받으면서 박병우 교사에게 다문화는 속명처럼 다가왔다.

“한 번은 대형마트에서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분명 우리나라에 있는 마트인데 한국어는 전혀 들리지 않고 대부분 사람이 외국어를 사용하더라고요. 마치 이곳이 한국이 아닌 듯한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때 이후 이 지역의 특수성인 다문화에 대해 관심이 많아졌어요. 특히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할지 고민되더군요.”

학교 담 너머 마을과 함께한 다문화 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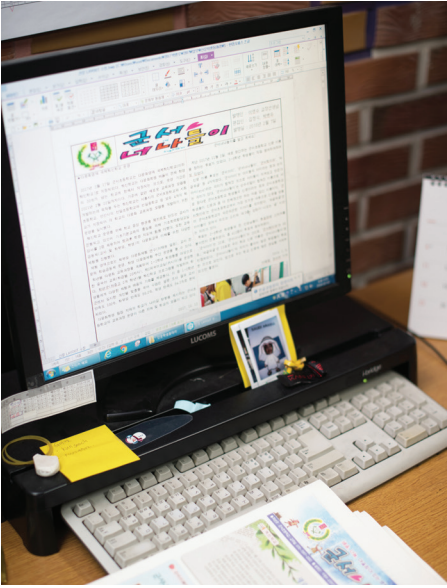
사회산업단지가 위치한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은 지역 특수성으로 인해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지역에 비해 다문화 가정의 비율도 높다. 군서초 역시 전교생의 50% 이상이 다문화 학생으로 중국, 일본, 필리핀, 카자흐스탄 등 10개가 넘는 국적의 아이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군서초는 경기도교육청의 다문화 영역 국제혁신학교로 지정되면서 언어·문화·체험학습 등에 걸쳐 다양한 다문화 교육을 펼치고 있다.

‘다문화 교육’과 ‘혁신학교’ 중 한 가지에만 해당해도 교사는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고 더욱 많은 수고를 들여야 한다. 한데 박병우 교사는 다문화 국제혁신학교에 근무하며 오히려 더 많은 걸 깨닫고 배운다고 말한다.

아이들의 달리기 시합으로 운동장 한쪽이 소란스럽다. 같은 출발선에 나란히 서서 앞으로 뛰어나갈 준비를 하는 아이들. 박병우 군서초 교사는 아이들의 미래 역시 국적이나 피부색에 대한 편견 없이 똑같은 출발선상에서 시작되길 바란다. 그런 만큼 박병우 교사는 학교 안팎에서 다문화를 제대로 알리고 공유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BYOUNG WOO PARK



“혁신학교는 교사의 자율성과 재량권이 더욱 요구되는 만큼 교사가 책임지고 준비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더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어 성취감과 즐거움이 크죠. 제가 올해로 교직 생활 5년 차인데, 그간 계속 혁신학교에서 근무했습니다. 체계는 큰 행운이죠.”

다문화에 대한 박병우 교사의 관심은 학교 담당 너머 마을까지 닿았다. 시흥시 정왕동에 이웃한 군서초·군서중·군서고는 매해 주민과 함께하는 다문화 축제인 ‘정왕동마을축제’를 진행하는데, 박병우 교사는 지난해 군서초 담당 교사로 축제에 참여했다. 낮에는 수업하고, 밤에는 축제 준비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지만 박병우 교사는 축제 역시 또 하나의 교육이라 여기기에 적당히 할 수 없었다.

“학교에서는 피부색이 다른 친구를 차별하는 건 잘못된 행동이라 가르치는데 집에서는 부모님이 아무렇지 않게 인종차별적 발언을 한다면 아이들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죠. 학교에서는 똑같이 소중한 존재라 교육받지만 밖에 나가면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때문에 상처받는 경우가 흔합니다. 다문화 교육은 학교는 물론 가정과 지역사회가 함께해야 진정한 교육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마을 축제는 공동체 구성원이 함께 어울리고 서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꼭 필요합니다.”

편견을 깬 후에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

사실 다문화에 대한 무지와 편견은 알게 모르게 일상화돼 있다.

박병우 교사 역시 오랜 기간 아이들을 교육했지만 자신에게도 아직 고정관념이 습관처럼 남아 있다고 고백한다.

“한번은 아이들과 함께 피자를 시켜 먹었는데 한 아이가 먹지 않고 머뭇거리더라고요. 이슬람교도인 아이가 피자 속에 돼지고기가 들어 있을까 봐 먹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양한 문화권의 학생들이 함께하는 만큼 일상 하나하나를 세심히 살펴야 하는데 가끔 이렇게 깜빡하거나 무심코 지나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참 무섭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죠.”

한번 자리 잡은 고정관념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박병우 교사. 그래서 더 일찍, 더 빨리 아이들에게 다문화 교육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한다.

“학교는 다른 어떤 곳보다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공간입니다. 사람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교육이 우선돼야 하죠. 다른 나라의 언어, 사고, 문화를 넘어 사람에 대한 이해, 배려, 사랑을 가르쳐주는 것이 다문화 교육의 본질이 아닐까요.”

박병우 교사는 처음 교직 생활을 시작할 때 ‘친구 같은 선생님’을 꿈꿨다. 하지만 한 해 두 해 시간이 지나며 그의 꿈은 자연스럽게 바뀌었다. 바로 아이들이 커서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지 고민할 때 한 번쯤 자신을 떠올릴 수 있도록 ‘롤모델이 되는 교사’가 되는 것. 박병우 교사의 꿈이 이뤄지는 날, 우리는 일곱 빛깔이 따로 또 함께 빛나는 학교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박병우 교사를 응원해야 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문화 교육은 학교는 물론 가정과 지역사회가
함께해야 진정한 교육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마을 축제는 공동체 구성원이 함께 어울리고
서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꼭 필요합니다.



나이와 경력을
뛰어넘는 우정을 나눕니다

조아라 교사



장제윤 교사



사람이 가진 많은 복 중에서 으뜸을 꼽으라면 아마도 인복이 아닐까? 서울 양천중에서 1학년 담임으로 재직 중인 조아라 교사와 장제운 교사는 서로를 두고 자신의 '복'이라고 꼽는 데 주저함이 없다. 사회생활을 하다가 교편을 잡은 늦깎이 신참 교사와 경력 5년 차인 젊은 교사가 함께 나누고 있는 풋풋한 우정. 그들에게 그것은 삶의 활력소이자 교사 생활의 원동력이다.



늦깎이 교사, 젊은 선배 교사를 만나다

연빛 하늘이 낮게 드리운 평일 점심 즈음, 조아라 교사와 장제운 교사가 상수역에서 만났다. 지난해 학기 초에 처음 만나 1년이 넘도록 차곡차곡 우정을 쌓아온 두 교사지만 이렇게 평일 낮에 따로 시간을 내서 만나는 건 처음인지라 두 교사의 얼굴에서는 설렘과 기대가 피어오른다.

사실 오늘 만남은 조아라 교사가 장제운 교사에게 “함께 추억을 쌓아보자”라고 적극 제안한 덕분에 성사되었다.

“저는 직장 생활을 하다가 뒤늦게 임용시험을 보고 교직 생활을 시작했어요. 작년에 첫 발령을 받아 양천중학교에 부임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질이 끌어주고 가장 많이 도와주신 분이 장제운 선생님이세요. 저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5년 차 교사로서 신참인 제가 궁금해하는 걸 전부 답해주시고 옆에서 도와주셨죠.”

조아라 교사의 말에 옆에 있는 장제운 교사가 민망한 웃음을 감추지 못한다. 장제운 교사가 그토록 열성적(?)으로 조아라 교사를 도와준 이유를 궁금해하자 제법 긴 답변이 돌아왔다.

“제가 신참 교사일 때 모르는 게 많아 정말 고생을 했어요. 그때 신규 선생님이 오시면 꼭 잘해드려야겠다고 마음먹었죠. 조아라 선생님은 우리 1학년 부실의 유일한 신규 선생님이셨는데 성격이 정말 사근사근하고 매사에 적극적이어서 질문이 무척 많았어요. 꽤 놀랐습니다. 나는 왜 신참 때 그렇게 적극적으로 못했나, 짹짹하지 못했나 싶어 스스로 반성이 되더라고요. 또 저도 오랫동안 임용 시험을 준비하다 보니 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교사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심전심 통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아직 대학생이라고 해도 믿음 만큼 풋풋함이 물씬 풍기는 두 교사가 또 마음이 통한 듯 마주 보고 활짝 웃는다.

맛과 멋을 즐기다

오늘 두 교사가 만난 곳은 브런치와 카페로 유명

한 상수역 거리다. 맛도 좋고 사진 찍기도 좋은, 그야말로 젊은 두 사람이 시간을 보내기에 최적이다. 점심시간에 만난 만큼 끼니를 해결하는 게 급선무인지라 브런치가 맛있는 곳을 찾아가기로 했다. 지도 앱을 켜고 이리저리 돌아 마침내 들어간 곳은 ‘어반 플랜트’.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 제법 큰 규모의 브런치 레스토랑으로 구석구석 숨어 있는 비밀스러운 공간이다. 역시나 여기저기서 열심히 셀피와 음식 사진을 찍는 사람으로 가득하다.

두 교사가 주문한 메뉴는 오믈렛과 버거. 오믈렛은 두 사람이 먹어도 충분할 만큼 양이 넉넉하고, 햄버거 속 패티는 두툼하고 육즙이 가득해 두 교사는 감탄사를 연발하며 쉬지 않고 포크질을 한다.

특별히 시간을 따로 내기는 어렵지만 방과 후에 종종 저녁 식사를 함께 하고 동료 선생님들과 방탈출 게임도 하러 간다는 두 교사의 점심시간은 매우 유쾌했다. 조아라 교사가 “장제운 선생님이 보드게



임을 워낙 좋아해서 새로운 게임을 많이 소개해주고 방법도 알려주세요”라고 말하자 장 교사가 세상 털털한 웃음을 또 터뜨린다. 묘하게 닮은 두 교사의 기분 좋은 에너지가 사방으로 퍼진다.

식사를 마친 뒤 찾은 곳은 홍대 부근에 위치한 ‘아이라최 작업실’이다. 이곳은 그림을 배울 수 있는 화실로 두 교사가 오늘 일정 중 가장 기대하며 찾은 곳. 두 사람 다 그림에는 재주가 없지만 오늘을 계기로 그림을 꼭 한번 배워보고 싶다는 소망을 내비쳤다. 작업실 내부는 아담하지만 예술의 향기가 물씬 풍겼다. 먼저 어떤 그림을 그릴지 선택해야 한다. 난이도가 너무 높아도 자신이 없고, 오늘 안에 완성하고 싶은 욕심을 부리니 적절한 그림을 고르기가 고민스럽다.

결국 두 사람이 심사숙고해 고른 그림은 식물. 심기일전하고 먼저 사각사각 스케치를 시작한다. 잘못 그리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태산같이 안고 시작했지만 아이라최 작가의 “대담하다” “잘하고 있다”라는 독려와 칭찬 속에서 제법 용기 있게 밀그림 작업이 쑥쑥 진행됐다. 학교에서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지만 이곳에서만큼은 학생과도 같다. 스케치가 끝나자 아크릴물감을 고르고 색을 배합하는 법을 배웠다. 물로 농도를 조절하면서 원하는 색이 나오면 둘 다 약속이나 한 듯 까르르 소녀 같은 웃음을 터뜨렸다. 마음은 급하지만 본격적으로 색을 입히기 시작하자 그림에 생명력이 더해졌다. 푸른 잎사귀가 포인트가 되자 갑자기 꽤 그럴듯한 작품처럼 보인다면서 또다시 웃음을 감추지 못하는 두 사람. 누구에게 선물할 거냐고 묻자 이구동성으로 선물할 수준의 그림이 아니라며 개인 소장 하겠다고 합창을 했다.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자니 두 사람의 성격을 가늠할 수 있었다. 대담하고 빠른 조아라 교사와 조금 느리지만 꼼꼼한 장제운 교사. 서로 잘 그린다고 마음을 다해 칭찬해주면서 각자의 그림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니 왜 두 사람이 나이와 경력을 뛰어넘어 우정을 나눌 수 있는지 그 비밀의 열쇠가 풀리는 듯했다.



마음을 다해 칭찬해주면서 각자의 그림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니 왜 두 사람이 나이와 경력을 뛰어넘어 우정을 나눌 수 있는지 그 비밀의 열쇠가 풀리는 듯했다.





오늘 하루 여행을 마치고

장제윤 선생님께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어요. 이제 교사 1년 차인데 제가 참여해도 될까 부담이 컸죠. 하지만 지난 1년간 저의 무수한 질문에 귀찮은 내색 한 번 없이 성심껏 도와주신 장제윤 선생님과 좋은 추억을 쌓고 싶어서 용기를 냈습니다. 덕분에 오늘 정말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었고, 지금까지처럼 올해도 헤어지지 말고(?) 함께 즐거운 학교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장제윤 선생님이 없었으면 학교 생활을 이만큼 해내지 못했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조아라 선생님께

이제 교직 생활 5년 차인데 그동안 한 번도 해본 적 없던, 동료 선생님과 즐거운 하루 보내기를 할 수 있어서 무척 뜻깊었어요. 언제 봐도 열정이 넘치고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남다른 조아라 선생님을 보면서 정말 많은 걸 느끼는데, 부디 지금의 마음을 잃지 않고 학교 생활을 이어가신다면 최고로 좋은 선생님이 되실 거예요. 선생님 덕분에 서툴지만 그림도 배워보고, 오늘 하루 정말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감사해요.





‘아름다운 동행’ 참가자 모집
 <The-K 매거진>에서 ‘아름다운 동행’에 함께할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가족, 친구, 제자 등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떠나고 싶다면 아래 메일로 성함, 연락처, 참여 인원 및 관계와 참가 이유를 보내주세요. 아름다운 동행을 떠날 수 있도록 <The-K 매거진>이 함께합니다.

<The-K 매거진> 편집실
E-mail. jsh@swadcom.co.kr

언제나 처음 같은

드디어 완성된 그림! 제법 그럴싸한 그림이 완성되자 두 교사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나 그림을 그리는 동안은 무념무상, 모든 걸 잊고 캔버스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며 엄지손가락을 치켜든다.

브런치를 즐겼지만 그림을 그리면서 에너지를 소진한 조아라 교사와 장제운 교사가 이번에는 떨어진 당을 충전하기로 했다. 홍대 거리를 지나 도착한 곳은 카페 ‘블뤼테’. 꽤 널찍한 주차장은 물론 안마당, 넓은 실내 공간을 갖추고 있는 이곳은 플라워 카페로 불리기에 손색없다. 봄·여름·가을이면 무성한 나무와 식물·허브로 뒤덮이는 정원으로, 겨울에는 싱싱하게 자란 몬스테라를 비롯해 드라이플라워와 작은 화분에 담긴 식물 등 두루두루 봄 느낌을 자아낸다.

따뜻한 카페라테와 녹차라테가 앞에 놓이자 두 선생님의 손끝은 물론 마음도 노곤하게 풀리기 시작했다. 이참에 조아라 교사에게 진직 묻고 싶었던 질문을 꺼냈다. “직장인이었던 때가 더 좋으신가요, 선생님인 지금이 더 좋으신가요?” 그 무섭다는(?) 중학생을 가르치는 일에 대한 일종의 경외감이 섞인 질문이었다. 질문이 끝나자마자 조아라 교사가 큰 웃음을 웃었다.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그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아요. 선배 선생님들도 굉장히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이 더 행복합니다. 물론 때로는 버겁기도 하고 열심히 해도 제 진심이 통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워낙 아이들을 좋아하다 보니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 더 많아요.” 장제운 교사가 옆에서 이야기를 살짝 거든다. “조선 선생님을 유독 힘들게 하는 반이 있는데, 그 반 아이들을 위해 수업 준비를 따로 하시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라고 목격담을 전했다.

조아라 교사에게 꿈을 물었다. “꿈요? 저는 수업을 잘하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제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모든 아이가 자발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길 바라요. 정년이 됐을 때의 제 모습을 상상해보는다면 수업을 아주 잘하는 선생님이 되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아라 교사의 말에 장제운 교사가 응원을 한다. “지금처럼만 하면 문제없을 것!”이라는 진심 어린 덕담과 함께 말이다. 좋은 친구란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미중물과 같다. 나이와 경력을 뒤로하고 상대의 장점을 존중하고 이를 타산식적으로 삼은 두 사람은 서로가 교직 생활에서 발견한 가장 빛나는 보석이 아닐까.

두 교사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상수역 맛집 거리

홍대역 주변이 맛집과 옷 가게, 카페로 포화 상태가 되면서 상권이 자연스럽게 주변으로 확대되었다. 합정역과 인접한 상수역 역시 그런 곳으로, 이 부근 거리는 맛있는 브런치 레스토랑과 식당이 즐비하기로 유명하다. 예쁘고 아기자기한 레스토랑이 많아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카페 ‘어반 플랜트’는 트렌디한 식물로 가득 꾸며져 있어 도심 속 숲속의 카페라고도 불린다.

📍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85 상수역



홍대 문화 공간

홍대 부근이 맛집과 카페의 명소가 된 지 오래지만, 그렇다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웨데이 클래스는 물론 정기 클래스까지 직접 그림을 그리고 배워볼 수 있는 문화 공간도 있기 때문이다. 수채화는 물론 아크릴화, 유화까지 직접 작업해볼 수 있는 ‘아이러치 작업실’은 친구, 연인, 태교를 위해 찾아오는 임신부까지 다양한 사람이 드나드는 문화 사랑방이다.

📍 서울시 마포구 와우산로3길 39
 📍 카카오톡 ID ruddyqueen



홍대 와우산로 거리

‘홍대 거리’라는 말은 이제 젊음을 상징하는 고 유명사가 되었다. 트렌드를 이끄는 옷 가게, 먹거리 유행을 만들어가는 식당, 프랜차이즈가 아닌 아기자기한 커스텀 하우스 카페, 거리의 뮤지션이 넘쳐나는 이곳은 그 자체로 꿈틀거리는 생명력을 지녔다. 틀에 박힌 유행이 지겹다면 필히 이곳에 들러보자. 수많은 예술가에게 영감을 주는 홍대만의 색은 여전히 찬란하다.

📍 서울시 마포구 와우산로



안데스의 희망을 만나다

페루 모케구아

코레아 델 수르(한국)에서 온 '앙헬라' 안녕하세요. 저는 페루 남부 모케구아에서 과학 분야 파견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백상아입니다. 이곳에서는 '안젤라' 혹은 '앙헬라'로 불립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께 선물 받은 아즈텍·잉카



문명에 관한 책과 고교 시절 우연히 라디오에서 들은 스페인 노래

덕분에 오래전부터 중남미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었어요. 오랜 생각 끝에 2016년 상반기에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개발도상국 기초교육 향상을 위한 '교원 해외파견사업' 프로그램에 지원해 꿈꾸던 대로 남미 페루에 와 있습니다.

현재 모케구아 산안토니오 지역의 두 국·공립학교에서 파견 근무를 하고 있어요. 전 초등학교 사지만 현지 사정상 중·고등학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의아할 수 있어요. 남미, 특히 페루는 주로 스페인어를 사용해 영어로는 의사소통이 매우 힘들어요. 저도 처음엔 스페인어를 몰랐지만, 꾸준히 노력한 결과 지금은 중학생들과는 스페인어로 수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 근무 학교는 코아르 모케구아(Colegio de Alto Rendimiento de Moquegua)라고 불리는 페루 교육부 산하의 3년제 공립영재학교이고, 벨라운데 테리(I.E.Belaunde Terry)라는 5년제 공립학교인 세쿤다리아 학교에서 주 1회 근무합니다.

낮선 나라 페루의 모케구아



페루는 한국에서 만 이틀 가까이 걸리는 멀고도 낮선 곳입니다. 남미 대륙에서 세 번째로 큰 나라로 코스타(Costa) 해안 지역, 시에라(Sierra) 고산 지역, 그리고 셀바(Selva) 밀림 지역 등 크게 세 지역으로 구분합니다. 우리가 흔히 페루 하면 떠올리는 이미 지인 쿠스코와 마추픽추는 시에라에 있고, 저는 코스타의 남부 모케구아에 있습니다. 수도 리마보다는 오히려 칠레 북부 국경과 더 가까워요. 리마에서 버스를 타고 20시간 남짓 걸리는 먼 곳입니다.

페루는 남미 대륙 중 안데스 원주민의 비율이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로, 비슷한 인구 구성의 인접 국가인 볼리비아, 에콰도르, 콜롬비아 등과 함께 안데스 공동체(Comunidad Andina)로 불립니다. 그러나 인디헤나(Indigena), 즉 원주민은 종종 남미에서 멸칭과 가까운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스페인 정복자로 인한 중남미 내 제국과 공동체들의 멸망, 이어 300여 년의 기나긴 잔인한 식민 지배 시절 내내 원주민들은 스페인계 백인 지배층으로부터 ‘말을 할 수 있는 동물’ ‘인간 아래의 존재’ 등으로 불리며 비참한 삶을 이어갔기 때문입니다. 19세기 중남미 국가들의 독립 이후 계급 사회의 틀은 그대로 사회·경제적 계층으로 고착화되어 현대사회에서도 페루 및 다른 중남미 국가들의 원주민은 대체로 낮은 소득과 낮은 교육 수준으로 하층민 계급에 속합니다. 제가 가르치고 있는 이곳의 학생 대부분이 원주민계 가정 출신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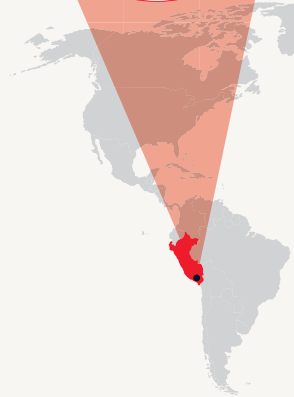
페루 교육부의 장기 프로젝트형 기숙학교, 코아르 모케구아



코아르는 페루 교육부의 장기 프로젝트형 기숙학교입니다. 몇 년 전까지 리마주에만 있었지만 이제는 페루의 각 주마다 하나씩 신설해 지난해 첫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보통 저소득층인 공립학교 출신 학생 중에서 똑똑하고 인성이 바른 학생들을 2차 시험을 통해 선발합니다.

학생들은 학교를 다니는 3년간 교복부터 노트북, 학용품 등 필요한 물품을 모두 제공받습니다. 이 모든 비용은 페루 교육부에서 지원합니다.

코아르의 교육과정은 국내외 우수 대학에서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을 위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국제학위) 과정을 채택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MOQUEGUA, PERU





코아르 학생들은 한국을 무척 궁금해합니다. 페루에서 K-팝과 K-드라마의 인기가 높아 한국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아요. 한국과 관련된 수업도 합니다.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를 예로 전자기 원리를 설명하기도 하고, 에버랜드의 롤러코스터로 위치에너지 관련 문제를 함께 계산해보기도 합니다. 더불어 학생들로부터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쳐달라는 요청을 받아 일주일에 2시간 정도 특별 수업을 하기도 했답니다.

코아르는 행사가 많은 편입니다. 큰 행사 때는 모두가 모여 행진을 합니다. 저는 한복을 입고 행진을 했는데, 모든 관중에게 한국을 알리는 계기가 됐어요. 동시에 많은 찬사를 받았습니 다. ‘어머니의 날’과 ‘아버지의 날’은 따로 기념하고, ‘선생님의 날’에는 아이들이, ‘학생의 날’에는 선생님들이 직접 무대 행사를 준비하며 서로를 즐겁게 해줍니다. 크리스마스나 신년 연휴가 가장 큰 명절이기에 그전에 모두 모여 회식을 하고 선물을 주고받지요. 특별한 날에는 다같이 기니피그 요리인 꾸이(Cuy)를 먹기도 합니다.

코아르 모케구아의 첫 졸업생들을 위해



지난해 12월 말, 2016년 하반기부터 가르쳐 온 학생들이 첫 졸업생이 되었습니다. 이들 중 어떤 아이들은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하고 싶은 공부를 계속하

지만, 대다수의 아이는 가난한 집안 사정으로 인해 일단 고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너무도 가슴 아픈 페루의 현실이지만, 마음이 맑고 똑



뚝하며 웃음이 많은 예쁜 제자들에게 앞으로는 더 좋은 일이 가득하길 바라며, 졸업식을 마치고 한 명씩 꼭 안아주었습니다.

“늘 부족한 외국인 선생님의 제자가 되어주어 고맙고, 좋은 추억을 선물해주어 또 고마워. 미래에는 너희에게 좋은 일만 기다리고 있을 거야. 늘 행복하고, 희망을 간직하길 바라.”

코아르 제자인 마릿사는 부모님이 쿠스코 인근 산간 지방 출신입니다. 원주민 출신이기에 취업에 불이익을 받는 등 여전히 극심한 차별을 당합니다.

자신의 부모님이 평생 사회로부터 차별받는 것을 지켜보며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마음으로 공부하던 마릿사는 저를 만나면서 스스로 많이 변했다고 말했습니다.

“앙헬라 선생님 덕분에 제가 몰랐던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문화적 지평을 넓히게 되었어요. 선생님이로 인해 제 세계가 변했습니다. 제게 주신 많은 지식과 다른 세계들, 그 모든 것에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마릿사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듣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잉카의 후예들, 찬란한 꽃을 피우기를



처음, 페루 타크나 공항에 도착해 다시 모케구아로 가는 그 길엔 나무 한 그루조차 없는 황량한 사막뿐이었습니다. 솔직히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산’하면 보통 ‘푸름’, ‘녹색’, ‘단풍’ 등을 떠올리는 한국에서 나고 자란 제가, 붉은빛 토지로 덮인 민둥산이 즐비하고 커다란 멕시코 선인장이 가로수 역할을 하는 페루의 코스타 지역 모케구아의 메마른 풍경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상상이 되실까요?

그리고 생각보다 영어가 전혀 통하지 않고, 너무나 다른 문화를 가진 이곳에 조금씩 적응하기까지 마음고생을 심하게 한 기억이 납니다. 비록 그토록 오고 싶어 한 남미라 할지라도요. 더불어 제가 가르친 학생들과 학교 생활을 통해 여전히 페루 사회, 더 나아가 중남미 사회 전반에 만연한 인종차별 및 원주민 차별, 극심한 성차별과 남성 우월주의에서 비롯된 가정 폭력과 여성 폭력, 미혼모 문제, 불안한 치안과 마약 문제, 질 낮은 교육 시스템, 극복할 수 없는 빈곤 등을 직접 제 눈으로 보며 이곳의 기습 아픈 현실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바라고 또 바랍니다. 안데스의 땅, 모케구아. 제가 가르친 잉카의 후예들이 훗날 페루 사회의 희망으로서 굵은 뿌리를 내려 찬란한 꽃을 피우기를. 거기에 외국인 선생님인 제가 조금이라도 그 역할에 도움이 되었기를. 이런 간절한 바람이 그들에게 닿기를 나날이 기원하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파견 생활을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백상아 경남 진주 집현초 교사

현재 잉카의 나라 남미 페루에서 고군분투하며 현지 학교에서 파견 교사로 일하고 있다. 파견 이후에도 이곳에서 만난 아이들이 앞으로 꿈과 희망을 품고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미래를 위해 오는 9월부터 영국에서 국제개발교육 석사 과정을 시작할 예정이다.

‘비엔 비에이르(Bien-Vieillir)’ 시니어의 존재 미학

진화하는
시니어 아이콘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만족’과 ‘나이 들기’의 조합을 어색하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다소 초라하고 슬픈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신체가 쇠약해지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는, 더 나아가 죽음과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음울한 과정과도 맞닿아 있었다. 하지만 ‘나이 들’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멋지고 당당하게 나이 들 수 있다는 믿음, 비엔 비에이르(Bien-Vieillir). 프랑스어로 ‘만족스럽게 나이 들기’를 의미한다. 세월이 흘러 저절로 나이를 먹는 게 아니라 만족스럽게(Bien) 나이 든다(Vieillir). 단순히 ‘나이 들’보다 훨씬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개념이다.

여용기 할아버지의 ‘멋’,
박막례 할머니의 ‘꽤’



만족스럽게 나이 들기 위해서는 일단 ‘멋’이 있어야 한다. ‘한국의 닉 우스터’, ‘남포동 꽃할배’로 불리는 여용기 할아버지는 젊은 사람 못지않은 패션 감각을 자랑한다. 마스터 테일러로 일하며 핑크색 모코넥, 체크무늬 베레모, 롱 코트 등 다채로운 패션 아이템을 소화한다. 2030세대에 뒤지지 않는 ‘핏’을 자랑하는 그의 사진은 인스타그램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5만명에 가까운 팔로어를 거느린 이 ‘패션 인플루언서’는 도처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다. 구두 전문 브랜드 텐디는 여용기 씨와 협업해 자사의 크래프트 슈즈 ‘블랙라벨’을 성공적으로 홍보했고, 롯데백화점은 그가 론칭한 수제 정장 브랜드의 팝업 스토어를 선보였다. 그는 그저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패션 센스와 멋에 대한 철학을 비즈니스에 접목해 성공한 경우다.

독일의 저널리스트 프랑크 슈르마허 박사는 “텔레비전, 영화, 광고를 불문하고 노인들이 종적을 감춰버렸기 때문에 개인의 노화는 더욱 눈의 띄는 현상이 된다”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70대 유튜브 스타 박막례 할머니가 있다. 롯데홈쇼핑은 미국 패션 잡지 <보그>와 인터뷰까지 한 이 싱그러운 할머니를 모셔와 ‘막레썸’을 연출했다. 그녀는 기미 크림을 직접 바르며 “느그들 필요한 대로 짜서 써”라고 말한다. 촬영 현장에 있는 남자 스태프의 머리를 직접 감겨주며 소비자에게 샴푸의 효능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유쾌하게 전달하기도 한다. 손녀딸과 한번 만나보라는 말도 잊지 않는다. 기존 쇼호스트에게서는 들을 수 없는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와 친근한 화법으로 상품을 설명하는 그녀의 매력에 주문량이 폭증했다.

SENIOR



자녀보다 낫다? 위메프의 '텔레마트'



예전의 무기력한 이미지를 벗어던진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들은 소비 생활도 만족스럽게(Bien) 영위하고자 한다. 이에 유통업체가 발 벗고 나섰다. 시니어 고객에게 만족감을 선사하기 위해서 그들의 니즈와 정서를 면밀히 연구하는 것은 물론 그들이 불편 혹은 불만을 느끼는 지점을 연구해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품과 서비스에 반영하고 있다.

위메프는 발상의 전환을 보여준 좋은 예다. 소셜 커머스 업체인 위메프는 사실 시니어 고객과는 거리가 멀지만 그들의 불편을 외면하지 않았다. 모바일 쇼핑을 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50대 이상 고객을 위해 유선으로 결제 진행은 물론 배송 안내까지 해주는 전화 주문 서비스인 '텔레마트'를 출시한 것이다.

텔레마트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듣고 "아니, 자녀 똥다 뭐하나? 스마트폰 사용법 좀 물어보면 되지"라고 반문하는 이가 있을지 모른다. 그런데 이는 말처럼 쉽지 않다. 일단 시니어 고객은 젊은 사람만큼 IT 디바이스에 대한 이해가 빠르지 못하다. 자녀에게 '디지털 문맹'임을 굳이 확인시켜주고 싶지 않고, 또 학교 마치고 혹은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 녹신해진 자녀들에게 모바일 쇼핑 방법을 꼬치꼬치 묻는 것도 여간 눈치 보이는 게 아니다.

단순히 젊은 사람들보다 스마트폰에 덜 익숙한 게 문제가 아니다. 미안하기도 하고, 때론 섭섭하기도 하고, 약간 창피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복잡한 정서가 맞물려 있는 것이다.

위메프는 그런 어르신들에게 간단한 해결책을 제안했다. "전화 주세요. 다 해결해드릴게요!" 얼마나 속 시원한가. 자식보다 낫다.

시니어도 자존감이 필요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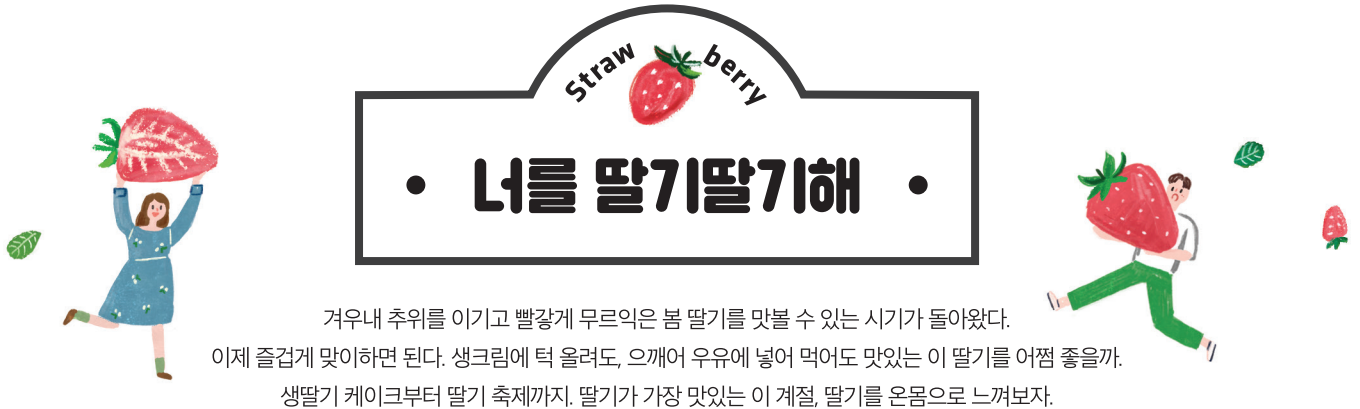


일본의 한 서점은 시니어 고객에게 콘시어지 서비스(Concierge Service)를 제공한다. 좋은 책과 음반을 안내하고 추천해주는 것이다. 시니어 고객은 이를 통해 서점에서 대접받는 느낌을 받는다. 잠실에 위치한 대형 복합 쇼핑몰 롯데월드몰에서는 연중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진다. 특히 1층 아트리움은 고객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인 만큼 인기 연예인의 사인회, 신차 전시 등 각종 프로모션 장소로 각광받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이곳에서 이색적인 무대가 펼쳐졌다.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으로 구성된 시니어 합창단이 멋진 하모니를 선보인 것. 이들은 누가 뭐래도 이날 행사의 주인공이었다. 물건 하나 더 팔려고 노력하기보다 어르신들에게 자존감과 추억을 안겨드리고자 한 업체 측의 배려가 돋보였다. 무분별한 시니어 마케팅이 판치는 업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봄여름가을겨울의 노래 '브라보 마이 라이프'에는 "찬란한 우리의 미래를 위해"라는 가사가 나온다. '찬란한 미래'는 젊은 세대만 전유하는 것이 아니다. '비엔 비에이르'를 외치는 어르신들도 멋진 미래를 그려볼 수 있다. 이것이 요즘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존재 미학'이리라.

앞으로 '비엔 비에이르'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기업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나이 들'을 받아들이는 새로운 유형의 어르신들, 모두에게 '브라보 마이 라이프'를 들어보길 권하며 글을 마친다. 찬란한 우리의 미래를 위해!





겨우내 추위를 이기고 빨강게 무르익은 봄 딸기를 맛볼 수 있는 시기가 돌아왔다. 이제 즐겁게 맞이하면 된다. 생크림에 톡 올려도, 으깨어 우유에 넣어 먹어도 맛있는 이 딸기를 어쩔 줄을 모르겠다. 생딸기 케이크부터 딸기 축제까지. 딸기가 가장 맛있는 이 계절, 딸기를 온몸으로 느껴보자.



생딸기 디저트 카페, 키친205

함평 시골의 자그마한 카페가 이렇게 유명해지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키친205는 세 자매가 운영하는 작은 카페로 사계절 내내 생딸기로 만든 케이크 및 디저트를 판매한다. 직접 구운 제누와즈에 100% 동물성 생크림으로 만들어 진한 우유의 풍미도 느낄 수 있다. 키친205의 케이크는 하루 전날부터 딸기를 즐기고 써는 준비가 필요한 만큼 매일 정성을 다해 만든다. 4시간의 짧은 영업시간에도 카페에는 사람이 가득하다. 홀 케이크는 당일 현장 구매가 불가하고 7일 전부터 주문이 가능하다.

- 📍 장소 전남 함평군 함평읍 영수길 205
- 🕒 시간 오후 1시 ~ 5시, 케이크 소진 시 마감(월요일 휴무)
- ☎ 문의 061-322-9898

딸기를 온몸으로 느껴요, 양평딸기축제

양평 봄 딸기의 맛과 향을 제대로 느끼고 싶다면 '양평딸기축제'를 주목하자. 딸기를 직접 따고 맛보며 느낄 수 있는 오감축제다. 1인당 한 팩씩 담아 갈 수 있으며,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만큼 그 자리에서 바로 먹어도 괜찮다. 양평군의 약 15개 마을이 참여, 마을마다 체험 프로그램이 조금씩 다르니 홈페이지에서 미리 숙지하자. 프로그램에 따라 딸기를 활용한 딸기잼, 딸기 음식 만들기도 함께 진행한다. 딸기 체험과 농촌 체험을 함께 즐길 수 있어 가족 단위 참가자가 많다. 체험은 사전 예약제로 진행된다.

- 📅 일정 ~ 5월 31일(목) 📍 장소 경기 양평군 내 농촌체험마을
- ☎ 문의 031-774-5427 🌐 홈페이지 ypnadri.com





딸기의 모든 것이 한자리에, 특급 호텔의 딸기 뷔페

딸기의 모든 것을 양껏 맛볼 수 있는 무제한 딸기 뷔페가 있어 행복하다. 딸기 뷔페 열풍의 시초인 곳은 그랜드 워커히 서울의 '2018 Very Berry Strawberry'. 올해 오픈 11주년을 맞았다. 40여 가지의 메뉴 중 20가지 신규 메뉴를 개발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랜드 워커히 서울 딸기 뷔페의 시작은 2000개 이상의 생딸기를 층층이 쌓아 올린 베리타워에서 찍는 인증샷부터다. 놓치지 말자.

- 📅 **일정** ~ 4월 29일 매주 금~일요일
- 📍 **장소** 그랜드 워커히 서울 로비 라운지 더파빌리온
서울시 광진구 워커히로 177
- 💰 **가격** 성인 6만3천원,
초등학생 4만5천원, 미취학 아동 3만5천원
- ☎ **문의** 02-455-5000

직접 만드는 딸기 디저트, 엘리스키친 공방



덕질의 마지막 단계는 직접 만드는 것이라고 했던가. 딸기 덕후들의 마지막 행보는 아마도 직접 만드는 딸기 디저트일 것이다. 엘리스키친 공방은 딸기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다. 메인 커리는 딸기 티라미수 화분 케이크, 꽃부터 화분까지 전부 먹을 수 있는 특별한 케이크다. 풍미 진한 마스카포네 치즈를 더한 딸기 티라미수로 화분 안을 가득 채워 만든다. 더불어 프랑스 디저트인 딸기 콤포트, 딸기 앙금 떡케이크 등 딸기로 만드는 다양한 수업을 즐길 수 있다.

- 🕒 **시간** 매주 월·수·금·토요일 / 오후 2시·5시·8시
- 📞 **문의** 카카오톡 ID Serendi021



편의점을 가득 채운 빨간 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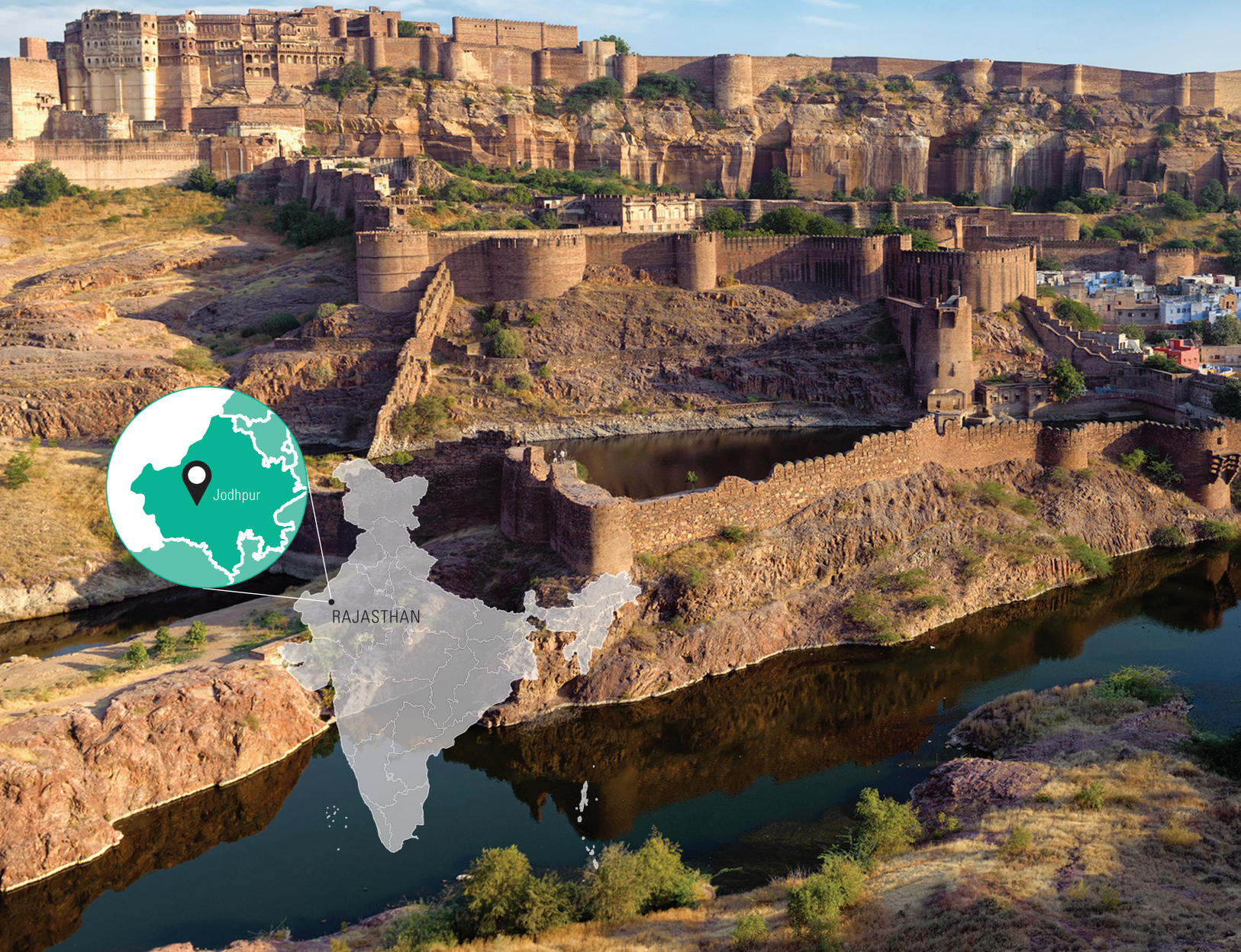
인스타그램의 핫 아이템, 편의점의 딸기 샌드위치. GS25를 선두로 CU, 세븐일레븐에서도 출시했다. 달걀보다 큰 딸기로 유명한 '킹스베리딸기', '딸기샐러드'도 편의점러의 구매 욕구를 자극한다. 1인 가구를 위해 소량 포장된 '간편히 씻어 먹는 디저트 딸기'도 나왔다. 작은 팩에는 딸기 5개, 큰 팩에는 12개가 포장돼 있다. 딸기의 인기는 주류업계로도 번졌다. 출시 전부터 화제가 된 '순하리 딸기'는 외국에서 먼저 선보였는데, 알코올 도수 12도로 딸기 특유의 새콤달콤한 맛을 느낄 수 있다. 딸기 애호가들의 요청에 국내 출시도 서두르는 중이다.



무사들이 건축한 거대한 성의 왕국

인도 - 라자스탄주 조드푸르

인도에서 가장 이국적이고 신비로운 모습을 간직한 땅, 라자스탄. 이곳은 파키스탄과 국경을 맞대고 있다. 광대한 타르사막에 둘러싸인 척박한 땅이지만, 메마른 사막 위에서 서 있는 거대한 성과 투명한 호수는 여행자들에게 인도의 어느 지역보다 화려하고 강렬한 인상을 심어준다.



국토 면적 세계 7위, 인구 세계 2위의 거대한 나라 인도. 이 나라가 보여주는 풍경은 경이롭다. 거리에는 비쩍 마른 결인과 소가 즐비하고 도로에는 벤츠와 오토릭사, 소가 끄는 수레가 뒤엉켜 있다. 중세 봉건시대에나 볼 수 있는 카스트제도가 여전히 남아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반면, 최첨단 테크놀로지가 발달한 나라이기도 하다. 미 항공우주국 과학자의 36%, 미국 전체 과학자의 12%, 마이크로소프트사 소속 엔지니어의 34%, 미국 전체의 사의 38%가 인도 출신이다. 이처럼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는 나라가 인도다.

전사들의 땅, 라자스탄

인도 여행 하면 흔히 뭄바이나 델리, 바라나시 정도를 떠올리는데, 인도를 두어 번 이상 여행한 사람들이 조금 더 인도다운 풍광을 찾아 떠나는 곳이

라자스탄(Rajasthan)이다. 우리에게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지역이다. 지도를 펴고 보면 인도 북서부와 파키스탄이 국경을 맞댄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데, 국경 지역인 테다 두 나라가 서로 우호적이지 않아 약간 긴장감이 느껴지기도 한다. 실제로 라자스탄을 여행하다 보면 거리 곳곳에 추락한 파키스탄 전투기를 전시해둔 것을 볼 수 있다.

라자스탄은 '라지푸트들의 땅'이라는 뜻이다. 라지푸트는 예로부터 라자스탄 지역을 지배한 전사들로 누구보다 용감하고 자부심으로 가득한 집단을 말한다. 라자스탄은 인도와 주변 국가로 통하는 군사적 요충지였고, 페르시아로 이어지는 동서 교역로에 자리했다. 아편과 비단 등을 중개 무역하면서 많은 부를 쌓은 이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전투가 빈번히 일어났는데,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무사가 필요할 수밖에 없었다.

India,
Rajasthan





지배자들은 무술이 뛰어난 라자스탄 사람들을 뽑아 무사 계급으로 만들었고, 이 과정에서 라지푸트가 탄생했다.

용맹스러운 라지푸트는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세력을 키워나가 마침내 라자스탄의 주인이 되었다. 라자스탄을 장악한 그들은 수많은 성채와 대저택인 하벨리를 건축하고, 그들만의 화려한 문명을 꽃피웠다.

라지푸트는 죽을지언정 전쟁에서 결코 물러서는 법이 없었다. 전세가 불리해지면 그들은 적진을 향해 죽음을 각오하고 돌진했다. 라자스탄에서는 이것을 '조하르'라고 부른다. 여자와 아이들은 이들의 뒤를 따라 불속으로 뛰어들었다. 라자스탄 여인들은 특히 절개를 미덕으로 여겼는데, 남편이 죽으면 불속에 자신의 몸을 내던지는 사티(Sati) 풍습을 지켰다. 사티란 남편의 죽음에 동참하는 일종의 순종 의식으로 인도를 식민 통치한 영국 정부에 의해 100년 전부터 근절되었다.



1. 메헤랑가르성에 새겨진 정교한 조각
2. 조드푸르 거리 풍경
3. 메헤랑가르성에서 내려다 보면 조드푸르 시내에 들어선 집들이 성냥갑처럼 보인다
4. 영화 <김종욱 찾기>의 무대가 된 거리

라지푸트의 이러한 용맹 때문에 인도 전역을 통일한 무굴제국도 라자스탄 지역만은 무력이 아닌 혼인 등을 통한 타협책으로 그들을 끌어안았다. 평지에 성을 세운 인도의 다른 지역과 달리, 라지푸트들은 외침에 대비해 주로 절벽에 성을 세웠다. 자이푸르의 자이가르성, 조드푸르의 메헤랑가르성, 자이살메르의 자이살성 등이 모두 적의 침범하기 힘든 천혜의 요새에 만들어진 성이다. 과거 피비린내 나는 전투가 벌어진 이 고성들은 오늘날 훌륭한 관광 자원이 돼 라자스탄을 빛내고 있다. 대부분 성은 최고급 호텔로 꾸며져 세계 각국에서 온 여행자를 맞고 있다. 여행자들은 오래된 성곽에서 하룻밤을 머물며 마치 마하라자(인도 왕을 일컫는 말)가 된 것 같은 호사를 누린다.

푸른 도시, 조드푸르

조드푸르에서 가장 먼저 찾아야 할 곳은 메헤랑가르성이다. 여전히 조드푸르의 마하라자가 소유하고 있는 이 거대한 성은 15세기 중엽에 착공해 19세기 초에 완성됐다. 높이 125m의 언덕에 웅장하게 서 있는 만큼 한눈에 보기에도 인근 왕국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해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고개를 180도로 돌려야만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이 성은 사막에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불가사의하게 다가온다. 물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메헤랑가르성에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지나야 할 곳은 자야폴(Jayapol)이라 불리는 정문이다. 1806년 마하라자 만 싱(Maharaja Man Singh)이 자이푸르와 비카네르 왕국의 공격을 막아낸 것을 기념하여 세운 승전문이다. 성문 앞에는 15개의 손바닥 자국이 찍혀 있는데, 마하라자의 미망인인 왕후들이 남긴 것으로 왕의 장례식 때 자신의 몸을 번제물로 바치는 사티 의식에 참여한 흔적이다. 메헤랑가르성은 여러 개의 안뜰과 궁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부분 왕의 행차에 사용된 소품과 초상화, 풍속화 등을 전시하고 있으며, 궁정과 왕의 행차 모습을 섬세하게 그린 세밀화도 만날 수 있다. 라자스탄은 인도의 다른 지방보다 세밀화가 발달했는데, 조드푸르를 비롯하여 라자스탄의 각 도시에는 세밀화를 가르치는 학교들이 있다.

메헤랑가르성 곳곳이 아름답지만 그중 백미는 왕의 침소다. 갖가지 색을 칠한 유리가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다. 보고 있자면 이런 방에서 하룻밤 머물고 싶다는 생각이 슬그머니 든다.

미로처럼 뒤엉킨 성채의 내부를 구석구석 돌아보았다면 성채의 꼭대기로 올라가보자. 커다란 대포가 구시가지지를 향하고 있다. 무시무시한 대포의 모습과 달리 이곳에서 바라보는 조드푸르의 풍경은 눈부실 정도로 아름답다. 벽이 푸른색으로 칠해진 도시는 말 그대로 푸르고 푸르다.

사막 위의 도시 조드푸르가 푸른색에 집착한 이유는 푸른색이 인도의 최상위 계급인 브라만의 고유





1. 화려하게 장식된 왕의 침소
2. 푸른 도시로 불리는 조드푸르
3. 조드푸르 시장 풍경
4. 메헤랑가르성의 웅장함과 푸른 도시의 조드푸르가 한눈에 보인다



아침에는 짙은 안개에
뒤덮여 보이지 않다가
안개가 걷히면서
드러나는 인도의 모습이
마치 첫사랑에 대한
이미지와 같았다

색이기 때문이다. 1459년 조드푸르가 마르와르 왕국의 수도가 되면서 당시 브라만 계급이 다른 계급과의 신분 차이를 드러내기 위해 집에 파란색을 칠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다른 계급들 역시 신분 상승에 대한 기대감과 염원으로 자신들의 집을 푸른색으로 칠했고, 점차 도시 전체가 푸른색을 띠게 되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조드푸르는 ‘블루 시티’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메헤랑가르성에서 좁은 골목길을 따라 내려가면 구시가지에 닿는다. 골목은 술래잡기를 하는 아이들과 담배를 피우는 노인들, 소 떼와 오토릭샤, 세계 각지에서 몰려든 여행자로 북적인다. 그리고 이 골목을 따라 계속 가다 보면 사르다르 마켓에 닿는데 각종 채소와 향료, 인도 과자, 직물, 은, 수공예품을 파는 상점이 가득하다. 이곳에서 인도 홍차인 ‘차이’를 마시며 바라보는 메헤랑가르성 야경도 꼭 한번 볼만하다.

로맨스, 액션... 다양한 이미지가 공존하는 도시

조드푸르는 임수정(지우 역)과 공유(기준 역)가 주연한 로맨틱 코미디 영화 <김종욱 찾기>에서 온통 푸른빛으로 가득한 낭만적인 도시로 우리에게 소개되었다. 아마도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라자스탄의 도시일 것이다. 영화에서는 지우의 첫 여행지이자 그녀의 첫사랑 김종욱과의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등장한다. 지우와 기준은 메헤랑가르성이 보이는 노천카페에서 차를 마시기

도 하고 성에 올라 도시를 굽어보기도 한다.

오랜 시간 지우의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특별한 첫사랑의 추억을 만들기 위해 제작진은 국내 최초로 인도를 찾아 로케이션 촬영을 단행했다.

“아침에는 짙은 안개에 뒤덮여 보이지 않다가 안개가 걷히면서 드러나는 인도의 모습이 마치 첫사랑에 대한 이미지와 같았다”라는 것이 장유정 감독이 인도를 로케이션 장소로 고집한 이유다.

메헤랑가르성은 영화 <더 폴>에서 악당 오디어스가 사는 곳으로 등장한다. 이 영화의 후반부에 나오는 치열한 액션 장면은 대부분 이곳에서 촬영되었다. <더 폴> 제작진은 영화의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푸른색 페인트를 무료로 나눠주었다는 재미있는 이야기도 있다. 꿈속의 푸른 도시가 더 아름다워진 이유다.

인도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나라다. 수많은 종교와 이해 불능의 사람으로 가득한 나라, 천년 전 생활 방식과 최첨단 IT 문화가 공존하는 나라, 뜨겁고 건조한 사막과 코뿔소와 하마가 살아가는 열대우림이 공존하는 나라가 바로 인도다.

인도의 이런 불가사의의함을 느끼고 싶다면 라자스탄으로 가보자. 메마른 모래바람이 불어대는 황폐한 대지 위에 눈부신 성이 우뚝 서 있는 풍경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신기루 같은 그 풍경은 직접 보는 순간에조차 도저히 믿을 수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만큼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실재가 될 것이다.

여행 정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인디아가 인천공항에서 델리까지 직항편을 운항한다. 타이항공은 방콕을 경유해서 델리로 취항한다. 델리에서 각 도시는 기차로 연결돼 있어 이용하기 어렵지 않다. 시차는 한국보다 3시간 30분 늦다. 라자스탄의 주요 도시는 관광 도시 이니만큼 숙소를 찾기도 수월하다. 궁전을 호텔로 개조한 곳이 있는가 하면 도시마다 아주 저렴한 게스트하우스도 있다. 호텔은 크게 성내와 성외의 호텔로 분류하는데, 성안에 있는 호텔이 좀 더 비싸다. 삶은 콩에 향신료 마살라를 가미해 만드는 인도식 수프 ‘달’은 밥에 섞어서 먹는다. 또 얇고 큰 호떡같이 생긴, 화덕에 구운 둥근 빵 ‘넵’은 한 국민의 입맛에도 잘 맞는다. 인도에서는 소고기나 돼지고기 요리를 구경하기 힘들지만 요구르트에 절인 닭고기에 향신료를 가미하여 구운 탄두리 치킨은 쉽게 만날 수 있다.



골목길의 부활,



과거와 현재가 따뜻하게 공존하다

공 주 제민천 문화거리



과거 골목길은 동네의 통로였다. 현재 서울 용산동, 망원동, 익선동, 후암동 등 떠오르는 동네에는 골목길이 존재한다. 충남 공주시 제민천 문화거리의 골목길도 그렇다. 담벼락 하나 사이에 과거와 현재가 마주 보고 있다.

변화, 도시 재생에서부터 시작하다

제민천(濟民川). ‘백성을 구제한다’는 의미가 담긴 이 하천은 공주시 중심부를 가로지르며 시민들과 수세기 동안 희로애락을 함께했다. 강에는 생명이 존재한다. 제민천은 공주 안에 스며든 생명의 터였다. 급속한 도시 발달 이후 오염된 물과 각종 생활쓰레기로 주민들에게 외면당하기도 했지만 2003년부터 꾸준한 환경정화 사업과 지방 골목길 재생 프로젝트를 통해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이 따뜻한 변화의 바람에는 ‘제민천 앱스’가 함께한다. 산책로 멀리서도 시선을 끄는 둥그런 건축물, 2017 대한민국 신진건축사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이 건물은 조진만 건축가가 설계했다. 고대 공공건축 바실리카에 보이는 앱스와 같은 형태로 건축해 제민천 앱스라는 이름을 얻었다. 제민천 산책길에 공공과 상업이 함께 만나는 조화를 꿈꿨다고 한다. 이처럼 제민천 문화거리에는 공공과 상업, 옛것과 새로운 것의 조화가 한창이다. 거리 곳곳에 알록달록한 벽화가 즐비하다. 제민천을 따라 느리게 산책길을 걸어본다.





카페 루치아의 딸



뒷길이 아닌 새로운 추억

산책길을 걷다 보면 잠자리가 놀다 간 골목이 나온다. 제민천과 구도심 신작로로 연결된 골목으로 50년 전 철조망과 나무판자로 이루어졌다. 골목 뒷담에서 숨은그림찾기가 시작되자 골목길은 더 이상 뒷길이 아닌 추억이 된다. 1952, 1955, 1990, 담벼락에 숫자가 가득하다. 집이 지어진 해를 나열한 것. 오래된 만큼 참신하고, 낡은 만큼 정겹다. 세월의 흔적이 가장 귀한 인테리어라고 했던가. 그 말이 실감나는 곳이다. 어디쯤일까, 우리 아버지가 걸었던 골목길은.

굽이굽이 꺾인 이 골목길을 걷다 보면 파란 대문의 예쁜 한옥이 보인다. 한옥의 아름다움을 살려 여러 곳에서 건축상을 받은 카페 '루치아의 딸'이다. 작지만 아늑한 곳으로 복잡한 현실을 잠시나마 잊게 해준다.

7080 시간 여행 속으로

공주는 교육 도시였다. "유능한 교사가 되려면 공주로 가라"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 그래서였을까. 시내에는 공주로 유학 온 하숙생들로 가득했다. 하숙이란 일정한 돈을 내고 타인의 방에 머물며 먹고 자는 일이다. 같이 밥을 먹고 몸을 부대끼고 살며 남다른 정이 피었으리라.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는 일, 하숙의 또 다른 뜻이 아닐까.

'공주하숙마을'에도 많은 사람이 옛 낭만을 품고 찾을 것이다. 현재 이곳은 게스트하우스로 운영 중인데, 2인실과 3인실 7개로 이루어져 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추억의 교복을 입고 있는 소년상과 소녀상 모형이 자리한다. 기념사진을 찍기에 알맞은 곳이다. 하숙마을은 모든 것을 허물지 않고 과거의 일부를 남겨두는



공주꽃문학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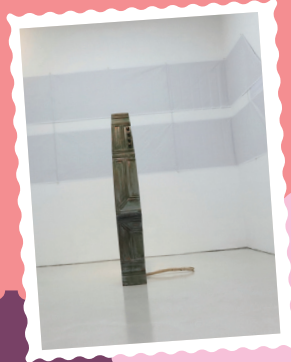
편을 택했다. 옛 시계의 모습과 뒤뜰의 우물 펌프, 누스 대문까지 생생함을 더한다. 복고풍의 하숙마을에 세월이 정지한 듯 머물러본다. 추억을 꺼내 또 다른 추억을 새긴다.

강인한 생명력을 노래하다

걷다 보니 ‘공주제일교회’에 다다랐다. 근대문화유산으로 손꼽히는 공주제일교회는 시린 아픔의 역사를 품고 있다. 1931년에 지어졌으나 1941년 일제에 의해 폐쇄되었고, 한국전쟁 당시에는 폭격으로 상당 부분이 파손되었다. 그러나 신축 대신 복원을 선택, 건립 당시의 시대상을 그대로 보여주기로 결정했다. 몇 번의 건물 보수에도 당시의 벽체, 굴뚝 등을 그대로 보존하는 등 건축사적으로 높은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아,

2011년 등록문화재 제472호로 지정되었다. 유관순 열사는 이 교회를 다니며 무슨 생각을 떠올렸을까. 방학이 되면 고향으로 내려와 후배들을 가르치던 열사의 모습이 떠올라 괜히 주먹을 굳세게 쥐어본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나태주 시인의 작품이 담긴 ‘공주꽃문학관’까지 둘러본다. 운이 좋다면 나태주 시인을 만날 수도 있단다. 실내 곳곳엔 시인의 약력과 작품이 전시돼 있다. 풀꽃의 강인한 생명력이 느껴진다. 3월의 새 시작에 시인의 따뜻하고도 강인한 감성까지 담아 간다. 공주에 오길 잘했다.

The-K와 함께 떠나는 3월 문화가 있는 날



현대미술의 역사 속에서
상실한 서사의 기억을 주목하다

기억공작소 I 〈기쿠치 다카시〉展 - 애매한 기억

기억공작소의 올해 첫 번째 초대작가는 자신이 만들고 싶은 것을 만들고 그리고 싶은 것을 그리는, 어떤 속박도 받지 않고 작품을 완성하는 작가 '기쿠치 다카시'. 그는 이번 전시에서 '나무 조각'으로 자연의 근원적 에너지를 탐구한다. 더 나아가 자연의 이치와 그 원리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과거의 재인식은 지나온 발자국을 되돌아보고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목적이다. 이때 필요한 전제가 각성이다. 마음의 치유까지 된다면 금상첨화겠다." 생명이 끝나지 않는 한 우리의 현재는 기억으로 저장된다. 전시를 보고 나오는 우리의 저장소도 풍성해질 것이다.

- 📅 일시 ~ 4월 1일(일)
- 📍 장소 대구 봉산문화회관 4전시실
- 🎫 관람료 무료
- ☎ 문의 053-661-3521

종이의 아름다움을
예술로 만나는 시간

〈Paper, Present: 너를 위한 선물〉展

하얀 종이는 무한한 가능성을 상징한다. 단순한 기록을 위한 사물에서 창작의 시작점까지, 다양한 매체로 표현된 종이와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의 섬세한 손끝에서 다시 태어난다. <Paper, Present: 너를 위한 선물>展은 종이 재료 본연의 아름다움을 바람, 별, 빛, 햇살 등과 같은 자연의 경이로움을 평범한 일상이 생경하게 다가오는 순간과 결합해 감각적인 공간을 구성한다. 섹션의 시작점마다 '오 밤 이정한' 작가의 서정적인 글로 따뜻한 감수성을 더했다. 공감각적 체험으로 새로운 기억과 추억을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을 선물한다.

- 📅 일시 ~ 5월 27일(일)
- 📍 장소 대림미술관
- 🎫 관람료 성인 6천원 / 학생(8~18세) 3천원 / 어린이(3~7세) 2천원
- 📅 프로그램
 - 1 고요한 새벽의 별빛
 - 2 섬세한 손길이 만든 햇살
 - 3 멈춰진 시간을 깨우는 바람
 - 4 익숙한 풍경에 숨은 놀라움
 - 5 거리에서 만난 동화
 - 6 꽃잎에 스며든 설렘
 - 7 그곳에 물든 기억
- ☎ 문의 02-720-0667





최초, 최장수, 최고의
완창 판소리 무대

김준수의 〈수궁가-미산제〉

2018년 첫 완창 판소리의 주인공은 국립창극단원 김준수가 되었다. '판소리하는 소리꾼'으로 내실을 다지기 위해 생애 첫 완창 판소리에 도전한다. 판소리 다섯 바탕을 길게는 9시간까지 완창하는 무대이니만큼, 당대 최고의 명창만이 올랐다. 이번 무대에서 선보일 '수궁가(미산제)'는 고음과 저음을 넘나들어 시김새의 화려함을 더한다. 다양한 장르와의 협업을 통해 소리 경험을 쌓아온 김준수의 특기가 충분히 발휘된다. 창자가 어릴 적부터 함께 호흡을 맞춰온 이태백·박병준이 교수로, 해설과 사회는 김기형 고려대 국문학과 교수가 맡는다.

- 🕒 **일시** 3월 24일(토) 오후 3시
- 📍 **장소** 국립극장 하늘극장
- 💰 **관람료** 전석 2만원(8세 이상)
- 👤 **출연** 김준수, 이태백, 박병준
- ☎ **문의** 02-2280-4114

대한민국 창작 뮤지컬의 신화

〈명성황후〉

뮤지컬 <명성황후>의 포스터가 바뀌었다. 20여 년 만이다. 고(故) 이만익 화가의 판화를 메인 이미지로 사용하던 포스터는 2018년을 맞아 한층 새로워졌다. 조선 제26대 왕 고종의 왕비이자 대한제국의 첫 황후인 명성황후의 서거 100주년을 기념해 제작한 <명성황후>는 국내 창작 뮤지컬 최초로 브로드웨이와 웨스트엔드에서 공연하며 해외 언론의 극찬을 받았다. 1300회 공연, 누적 관객 180만명이라는 기록을 세우며 대한민국 대표 창작 뮤지컬로 자리매김했다. 더 강렬하고 드라마틱해진 <명성황후>를 색다르게 볼 기회다.

- 🕒 **일시** 3월 6일(화) ~ 4월 15일(일)
- 📍 **장소**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 💰 **관람료** VIP석 14만원 / R석 12만원 / S석 8만원 / A석 6만원
- 🎭 **프로그램** 19세기 말 격변의 시대, 일본에 정면으로 맞서다 비참한 최후를 맞은 명성황후의 일대기
- ☎ **문의** 02-2250-5941



새내기 직장인을 위한 재무 설계와 투자 포트폴리오,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지난해 현재를 즐기며 산다는 율로족이 언론 매체의 중심에 올랐다.
저성장,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내일을 위해 준비하기보다는 오늘을 즐기려는 삶이 부각됐다.
하지만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소비가 언제까지 지속될까.
재무 설계의 필요성을 빨리 자각해야 한다.



소득이 많지 않은 20대 시기

소득이 많지 않은 20대 새내기 직장인에게 가장 중요한 시기가 있다. 바로 수입이 생기는 첫 직장생활이다. 이에 재무 설계의 필요성을 하루빨리 자각하고 구체적인 재무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

20대부터 직장생활을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면 수입이 생기고 이는 자연스럽게 경제생활로 이어진다. 대부분의 직장인이 풍족한 생활과 지속적이고 적절한 소득을 원하겠지만 살다 보면 수입과 지출, 소비가 매우 불규칙하게 이루어진다. 안정적인 미래와 더불어 소중한 꿈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직장생활 초기인 20대 때부터 재무 설계를 통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재무 설계는 본인의 재무 관련 내용이나 상황을 진단하여 목표를 세우고 그에 걸맞게 구체적인 자금 준비를 계획하고 실천해야 한다. 단순히 재산을 불리는 재테크와는 구별된다. 높은 수익의 금융 및 부동산 상품을 이용해 돈을 버는 기술을 넘어 수입과 지출을 합리적으로 설계할 뿐만 아니라 은퇴 이후 노후 생활까지 고려해 전반적인 인생 플랜을 짜는 것이다.

즉 장기적이고 계획적이어야 한다. 특히 새내기 직장인은 은퇴를 자신과는 상관없는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쉽다. 또 일을 지속하다 보면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돈이 저절로 모인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세월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고 돈은 계획이나 노력 없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작이 반이라고 하루라도 빨리 재무와 투자에 눈을 떠야 한다.

본격적인 투자 포트폴리오

실천 방안을 만들 때

재무 설계와 목표를 설정했다면 본격적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위한 실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먼저 월수입의 50% 이상은 반드시 저축과 투자를 통해 자산을 늘려야 한다. 월수입이 200만원이라면 최소 100만원은 노후 대비와 목돈 마련, 목적 자금을 위해 투자해야 한다. 목적 자금의 경우 막연히 '10억 만들기'가 아니라 '결혼 자금 3년 동안 3000만원 만들기'처럼 정확한 액수를 명시해 실현 가능하도록 목표를 구체화하는 것이 좋다. 직종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새내기의 월수입은 많지 않다. 그래서 고정 수입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지출 관리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지출을 통제하지 못하면 사회생활 첫 시작부터 마이너스 인생이 된다. 자신의 수입을 넘어서는 지출이 반복되다 보면 신용불량자의 굴레에 빠지고, 그로 인한 사회적 불이익도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20대 직장인은 과소비와 사치를 방지할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하다. 특히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사용해 총동구매와 빚에서 벗어난 계획적인 소비를 해야 한다.

또한 20대라고 해서 노후 대비에 너무 무관심하면 안 된다. 적은 돈이라도 언제 시작하느냐에 따라 복리의 차이가 크다. 하루라도 빨리 실행하는 것도 현명한 노후 대책이라 할 수 있다. 수익률 연 5%를 기준으로 5억원을 60세까지 마련하려면 현재 나이 25세인 사람은 월 43만원 정도를 저축하면 되지만 35세인 사람은 월 83만원으로 저축액수가 커진다. 기간은 35년에서 25년으로 10년 줄었지만 월 저축액은 약 2배 내외로 증가하는 것이다. 소득이 적으면 적은 만큼 관심을 갖고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적립해나가는 것이 해결책이다.

교직원은 최소 10%,

공제회 장기저축급여 가입 추천

먼저 금리상승기에 따른 중·단기적 적립식 투자다. 생활비를 제외한 투자금의 50% 정도를 적금과 펀드로 적절히 분산 투자하고, 1년간 쌓인 적금은 이자와 함께 예금으로 재예치하면 된다. 적금은 카카오뱅크 같은 인터넷 전문은행이나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는 5000만원 이하의 저축은행 상품을 이용해도 좋다. 조금이라도 높은 금리를 적용받아야 한다.

적립식 펀드의 경우 우량 펀드로 몇 년만 꾸준히 불입하다 보면 예금이나 적금 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다만 적립식 펀드라 할지라도 편입 종목 및 수수료를 자세히 분석해 가입하고 이후에도 해당 펀드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수익률 순위가 장기적으로 떨어진다거나 펀드의 설정 규모가 심각하게 줄어든다면 환매나 갈아타기도 고려해야 한다.

다음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내 집 마련 준비를 위한 청약 자격 확보가 필요하다. 매월 10만원씩 꾸준히 납부하다 보면 저축 액수와 납입 기간이 늘어 결혼 이후 공공분양 아파트에 청약 가능하고, 실제 수익률도 은행 예·적금 금리 이상이다. 그뿐 아니라 연간 240만원의 40%인 96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가장 먼저 서둘러야 할 재테크 상품이다.

마지막으로 연금저축을 통해 은퇴 준비뿐 아니라 연말 정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다. 납입 기간이 5년 이상, 연금 수령이 55세 이후인 경우 연 4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 보험료의 13.2%의 세액이 공제된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경우 2017년 7월부터 교사와 공무원, 군인, 자영업자도 가입 가능하다.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하며, 연금저축과 동시에 가입할 경우 연금저축 세액공제 액수에 더해 300만원까지 추가 공제된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새내기 직장인의 경우 16.5%라는 상당히 높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소득이나 형편에 맞게 투자금의 20% 정도는 소득공제 가능 연금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리하면 수입의 50% 이상은 반드시 투자하고, 투자금의 60% 내외는 결혼 등 종자돈 마련을 위한 적금이나 펀드 상품에 가입하자. 나머지 20% 정도는 소득공제형 연금 상품에 가입하고 실손보험 5%, 주택청약종합저축 10%, 나머지는 여행이나 자동차, 자기계발과 관련한 목적자금 마련을 위해 개인에 맞게 적절히 분산하면 된다. 교사나 공무원은 최소 10% 정도는 해당 직종 공제회의 장기저축급여에 가입하여 100세 시대 노후 대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한다면 더욱더 이상적인 재무 설계가 되리라 본다.

최치만

경기부천 석천초 교사. 개인 투자가로 KBS <이침미당>, MBC <경제매거진>, EBS <부모광장> 등 다수의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했으며, 2015-2016년 <한국교육신문>에 경제 칼럼을 기고하였다. 국무총리·교육부장관·경기도지사 교육감 표창을 받았다.





알아두면 유용한 은행 거래 서비스 100% 활용법

아직도 돈을 계좌이체 해주겠다는 지인에게 언제쯤 이체할 건지 연락하나요?
혹은 30분 단위로 은행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입금 여부를 확인하나요? 은행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유용하게 활용해 보세요.
알아두면 쓸모 있는 돈이 되는 팁, 은행 서비스 편을 시작합니다.

1 입출금 내역 알림서비스



계좌이체 받을 돈, 입금 확인하고 싶어요

- 계좌에 입출금 거래 내역이 있으면 즉시 본인에게 통보하는 서비스
- 계좌 비밀번호 변경, 통장 분실 재발급 등이 발생하면 즉시 알림
- 휴대폰 문자 혹은 스마트폰 알림 제공으로 소정의 수수료 부담 가능

TIP 휴대폰 번호 변경 시 은행에 알리기

2 자동이체 및 예약 서비스



매달 입금해야 하는 월세, 매번 깜박해요

월세·용돈·회비 등
주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동일한 계좌에
이체한다면

자동이체
서비스

특정 주기가 아니라
지정된 날짜에
잊지 않고
한 번만 이체한다면

예약이체
서비스

3 무통장·무카드 ATM 인출

어? 지갑을 두고 나왔네! 어쩔지?

사전에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면
통장이나 카드 없이도 계좌 개설 은행 ATM에서
현금 인출과 이체가 가능합니다
인출 한도와 이체 한도 설정도 가능해요

TIP 타 은행 ATM에서는 이용 불가

5 타행 자기앞수표 현금 교환 서비스

자기앞수표를 바로 현금으로 바꿔야 하는데
근처에 발행 은행 영업점이 없어요

타 은행에서 발급한 자기앞수표를
즉시 현금으로 교환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TIP 사전에 수수료 확인하기

4 이체 한도 초과 증액 서비스

이사하는 날,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인터넷뱅킹 이체 한도보다 많은 금액이 필요해요

주택 전세·매매 거래의 경우
미리 은행 점포를 방문해 이체 한도 증액을 신청하면
이체 당일에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뱅킹으로도
이체할 수 있어요

TIP 1일 및 1회 이체 한도는 은행마다 다르게 적용 /
OTP가 아닌 보안카드 이용자는 서비스 제한

6 증명서 인터넷 발급서비스

금융거래확인서나 부채증명서가
필요할 때 꼭 은행생구에 가야 하나요?

인터넷으로도 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요

갑자기 급여 계좌 등록을 위해
통장 표지가 필요해요

인터넷으로 통장 표지를
출력할 수 있어요.





가슴 뛰는 감동과 킁킁이 쌓인 지혜를 한 권의 책에 담다

‘내 인생의 꽃은 바로, 나’ 자서전 출간기념회

지난 1월 27일 The-K호텔서울에서 한국교직원공제회 특별회원 10명의 '내 인생의 꽃은 바로, 나' 자서전 출간기념회가 열렸다. 이는 「The-K 은빛동행」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특별회원의 신청을 받아 진행된 자서전 제작 프로젝트. 유쾌한 웃음과 가슴 뭉클한 감동이 공존한 현장을 만나본다.

달빛을 빚은 새

동인처럼 아름다운
살을 곁끼며

최향정 은빛동행

행복을 선사하는
최향정 은빛동행

과거를 찾아 의미 있는 여정을 떠나다

기록되지 못한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고 사라지기 마련이다. 그래서 시작했다. 잊혀져가는 삶의 기억을 찾아내 책으로 남기는 자서전 제작 프로젝트를.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저마다 인생은 한 편의 드라마라 해도 과언이 아닐 터. 한국교직원공제회는 평생을 교직에 몸담은 특별회원들의 '어제'에 주목, 지난해 8월 자서전 출간을 위한 회원 응모를 받았다.

반응은 상상 이상으로 뜨거웠다. 짧은 기간에 무려 300여 명이 지원해 5000여 장의 서류가 모였고, 공정한 심사 끝에 선정된 특별회원 10명의 자서전 출간 프로젝트가 지난해 9월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했다.

오늘은 그 뜻깊은 여정의 결과물을 처음 선보이는 자리. 자서전의 주인공을 비롯해 가족과 지인 그리고 제자들이 축하해주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본격적인 출간기념회가 시작되기 전, 참석자들은 행사장 곳곳에 전시된 주인공의 이력과 따끈따끈한 자서전을 보며 추억을 곱씹는가 하면, 포토 월에서 사진을 찍기도 하며 들뜬 분위기를 만끽했다. 오늘 행사를 계기로 오랜만에 마주하는 얼굴들도 여럿인지 오고 가는 인사가 다들 살갑고도 정겹다.

그렇게 오가는 덕담 가운데 드디어 행사가 시작됐다. 우선, 김미경 한국교직원공제회 고객지원팀장이 자서전 제작 프로젝트에 대해, 뒤이어 실제 책 제작을 담당할 정대영 몽클스토리 대표가 그동안의 추진 경과를 발표했다. 이번이 첫 회인 자서전 프로젝트는 주인공과 전문 작가의 개별 인터뷰와 자료 수집을 기초로 원고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두세 번에 걸쳐 인터뷰하는 동안 흐릿해진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나고 까맣게 잊고 있던 에피소드가 문득 떠오르기도 했다는 후문. 메이킹 영상 속 주인공들은 때로는 흐뭇한 미소로, 때로는 감동 어린 눈물로 어제의 이야기를 담담히 풀어내며 참석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웃음과 감동으로 하나가 되다

과거가 있기에 현재도, 미래도 있음을 우리는 잘 안다. 옛것으로부터 이어져온 진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오늘 빛을 본 10권의 자서전이 바로 그 방증이 아닐까. 그렇다면 각각의 책에는 과연 어떤 진리가 담겨 있을까. 수십 년 인생이 어떤 글로 정제되어 기록되어 있을까. 궁금증이 점점 커질 때 즈음, 주인공들에게 자서전을 증정하는 순서가 이어졌다.



스물셋비와
고로수연과
뜻깊은 여정이

스물셋비와 소리의 내아고



한 명 한 명 이름이 불리고 자서전이, 아니 꺾꺾 눌러 쓴 인생이 전달됐다.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이 결코 녹록지 않았음을 모두가 잘 알기에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박수와 환호가 행사장에 가득 채워졌다.

10명의 특별회원 대표로 감사 인사를 전한 윤용 회원은 “잠재되어 있던 인생의 갖가지 경험을 책으로 낼 수 있도록 이끌어준 한국교직원공제회를 비롯해 몽클스토리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한다”라며, “잉태한 아이를 세상에 내보내기 위해 산고를 겪듯, 자서전을 집필한 열 분 선생님 모두 집필의 고난을 겪으며 책을 완성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고예근, 김병욱 회원의 자서전 낭독 시간도 있었다. 퇴직 후 성인 대상 초등학교에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말로 문을 연 고예근 회원은 “한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 상상조차 못했다”라며, 과거 알림장에 답 한 번 없기에 자식 공부에 무관심하다고 오해한 학부모님들께 사죄하는 마음을 담아 <사죄하는 마음으로>의 한 페이지를 낭독했다.

<눈물 꽃비와 연보랏빛 쭉부쟁이>를 쓴 김병욱 회원은 최신 뉴스로 생활과 밀접한 화제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신문이었다며, 자서전 낭독을 통



MINI INTERVIEW

윤용 회원



오늘은 제 생애 가장 기쁜 날이에요. 자서전을 쓰는 동안 일기 형태로 모아놓은 글, 자식들과 주고받은 편지를 다시 모으고 다듬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니 이 책은 저의 역사이자 가족의 역사라고 할 수 있죠. 더불어 사회의 일면도 투영시키고자 했고요. 그동안 서러운 과거는 잊고 살려 했는데, 순간순간이 떠올라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되짚어볼 수 있어서 제게는 무척 뿌듯했던 시간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추억을 기록하는 여행기

기억은 사냥꾼의 손가락을 아껴준다

해 신문을 활용한 교육과정에 대한 열정을 참석자들과 공유했다.

책에 담긴 평생의 지혜를 나누다

행사 분위기가 점점 무르익고, 작은 축제의 흥을 더욱 돋울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됐다. 우리 소리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공연이 막을 올린 것. 익숙한 가요부터 어깨를 들썩이게 하는 민요까지, 참석자들은 한마음으로 공연을 즐겼다.

그 틈에 2부 행사인 손 편지 워크숍을 위한 준비가 진행됐다. 10명의 특별회원은 책을 쓰는 과정에서 떠올린 이들에게, 그리고 참석한 가족과 지인들은 오늘의 주인공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엽서에 담아 보내는 이벤트였다. 그동안 못 다한 말이 많은지, 다들 엽서의 빈 공간이 부족할 정도로 열정이 대단했다.

며느리에게 편지를 쓴 김병욱 회원은 “살다 보니 아팠던 일은 과거가 되었고, 힘든 일은 경험이 되었으며, 슬펐던 일도 기억 속에 흘러가더라”라며, 항상 “우리 아버님이 최고예요”라며 힘을 실어주는 예쁜 딸 같은 며느리에게 삶의 흔적을 부담 없이 이야기해주고 싶다고 편지를 낭독했다. 또한 자서전을 가장 먼저 전달하고 싶은 남편에게 편지를 썼다는 강창희 회원은 “항상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이해심 많은 남편을 자랑하고 싶다”라고 밝혔다.

진정한 선생님이 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개개인의 삶이 얼마나 큰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 문용린 이사장은 “이 열 권의 자서전은 대한민국의 교직 풍토와 선생님들의 마음가짐을 바꾸는 좋은 책이 될 것”이라며, 평생 대한민국 교육에 공헌한 주인공들에게 다시 한번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마치 기분 좋은 꿈을 꾸듯 지난날을 회상할 수 있었던 행사는 그렇게 마침표를 찍었다. 하지만 이것이 결코 끝이 아니다. 자서전 뒷부분에 이어질 더욱 풍성한 내일의 이야기가 새롭게 시작될 테니.



현광희 회원

어릴 때부터 문학과 예술에 관심이 많았어요. 글 쓰는 것을 좋아해 예전부터 퇴임 후 자서전을 꼭 써보고 싶다는 바람을 갖고 있었는데 좋은 기회를 맞이하게 되어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의 42년 교직 생활을 돌아볼 수 있어 무척 뜻깊었습니다. 작가님과 인터뷰하는 동안 어린 시절도 떠올릴 수 있었는데요. 마치 과거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어 즐겁게 작업할 수 있었습니다.



변상오 회원

1980년대 초만 해도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것을 의아해하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로서 장애인들을 돕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시작했고, 그 과정을 자서전에 담았습니다. 더 나아가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싶었고요. 사실 퇴직한 다음 자서전을 내기 위해 이미 500페이지 분량의 원고를 준비해놓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멋진 프로젝트가 시작돼 저에게는 좋은 기회가 되었죠.

가슴 뛰는
꿈을 위한
자서전

내가 걸어온 길

사랑사랑 조금 이른 제주의 봄,

춤말로 좋수다

<정말로>

3월, 어느덧 대지 위에 연둣빛 새싹이 올라오기 시작하지만, 아직은 공기가 서늘하다. 봄이 더디게 오는 내륙과 달리 제주는 벌써부터 봄의 정령이 깃든다. “어서 와, 제주에는 놓치면 후회할 꽃 삼월이 기다리고 있어.” 그렇다. 제주에 봄이 도착했다. 한발 먼저 시작한 제주의 봄을 알린다.

라
마
다
프
라
자

제
주
호
텔



한발 먼저 혼자서에

‘영등할망’ 덕분일까. 영등할망은 제주의 해상 안전과 풍요를 가져다주는 외방신으로, 음력 2월 초하룻날에 바람을 몰고 제주로 찾아와 보름 뒤 동쪽 섬 우도를 통해 다시 떠난다. 영등할망은 제주에서 머무는 보름 동안 제주 바닷가의 보말을 까 먹으며 다음 해에 수확할 해산물의 씨앗을 바다에 뿌려준단다. 그렇게 제주의 3월은 영등할망이 불어다 주는 따뜻한 봄바람으로 대지를 감싸 안는다. 유채꽃, 벚꽃을 연달아 꽃피우며 봄의 망울을 틔운다.

봄을 서두르는 유채꽃 몽우리에 얼었던 마음이 녹는다. 산방산의 웅장함을 배경으로 피어난 노란 유채꽃밭은 인생샷을 찍기 좋은 곳으로 유명하다. 조금 더 특별한 유채꽃을 만나고 싶다면 함덕 서우봉 해변을 추천한다. 서우봉 해변을 낀 언덕 언저리마다 노란 유채꽃이 만발해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한다. 바다와 유채꽃의 애뜻한 만남에 간지러운 마음은 덤이다. 이곳은 올레길 19코스인 ‘조천-김녕’의 일부에 속하며 서모봉 정상,

망오름, 봉수대에 오를 수 있다.

유채꽃과 함께 건기를 원한다면 제20회 서귀포 유채꽃 국제건기대회에 참여하는 것도 좋겠다. 3월 24~25일에 열리며, 5km·10km·20km 코스로 나뉘어 있어 선택이 가능하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벚꽃을 틔우는 곳도 제주다. 3월 말이면 제주 곳곳에서 핑크빛 벚꽃을 볼 수 있다. 드라이브 코스로 좋은 제주대를 비롯해 해마다 축제가 열리는 제주 시내의 전농로와 애월 장전리의 만개한 벚꽃 길을 걷다 보면 오롯한 봄을 느낄 수 있다.

사파이어빛 바다 위에 펼쳐진 봄을 따라

제주 바다에도 봄이 왔다. 겨우내 웅크리고 있던 바다도 눈을 뜬다. 제주의 북서쪽 끝자락, 드넓은 바다를 마주 보고 자리한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에서 봄 바다의 향을 맡아보자. 해안가를 마주한 호텔을 바라보고 있자면 마치 바다 위에 떠 있는 듯하다.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은 북유럽 럭셔리 유람선





실야라인(Silja Line)을 모티브로 만들어 사파이어빛 제주 바다를 호텔 바로 앞에서 즐길 수 있는 오션 프런트형 호텔이다. 호텔의 건축 철학은 인테리어에도 고스란히 반영돼 호텔 곳곳에서는 통유리창을 통해 제주의 푸른 바다와 하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또한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이 위치한 제주 탐동은 조선시대부터 제주의 도청 역할을 하던 원도심 지역이다. 호텔 주변 5km 반경으로 제주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시장인 '동문재시장'을 비롯해 역사적으로 유서 있는 조선시대의 옛 제주도청 '제주목 관아'와 '관덕정' 등이 자리하고 있다. 원도심 옛길을 굽이굽이 돌며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아트 공간과 카페가 여행을 더욱 풍성하게 한다.

입안에도 봄이 피어나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의 레스토랑, 라운지에도 봄이 찾아왔다. 제철을 맞은 제주 봄 식자재를 활용한 다양한 식음 프로모션이 진행된다. 베이커리 '델리'에서는 딸기 케이크와 엄선된 티 세트를 선보이며, 로비 라운지 '스콧트라'에서는 상큼한 제주 제철 딸기를 이용한 딸기 음료 시리즈를

즐길 수 있다. 제주 다이닝 '탐모라'에서는 '제주의 봄'을 주제로 콜라비, 햇고사리, 유채나물, 표고 등 제주의 제철 재료를 활용해 건강한 미각 요리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여행은 모름지기 입이 즐거워야 한다. 다양한 제주의 제철 음식으로 입안 가득 봄 내음을 느껴보자.

낭만 서비스 '10년 우체통'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의 '10년 우체통 서비스'로 낭만을 담아가는 것도 좋겠다. 카드에 편지를 써서 10년 안으로 발송을 원하는 연도와 달을 기입해 우체통에 넣으면, 그날 발송된다. 호텔에서 우체국에서 정식으로 발행되는 라마다프라자 영원우표와 예쁜 카드 세트를 2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판매 수익금은 전액 세이브더칠드런 후원금으로 쓰인다.

이처럼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의 이른 봄맞이 여행을 원한다면 공제회원 전용 패키지를 추천한다. 공제회원만을 위한 특별한 봄 프로모션 등 다양한 혜택이 준비돼 있다.

3월, 먼저 찾아온 제주의 봄을 따라 특별한 여행의 묘미를 누리보기를 바란다.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

- 📍 제주시 탐동로 66
- ☎ 064-729-8100
- 🌐 ramadajeju.co.kr



최대 1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라마다 홀을 비롯해 다양한 규모의 연회장과 웨딩홀, 뷔페, 한·일식당, 로비라운지, 베이커리숍 등의 레스토랑, 실내외 수영장장과 피트니스룸이 있는 스포츠센터 등을 갖추고 있다.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 주변의 제주 원도심 관광지 소개



제주목 관아



호텔에서
도보 10분

탐라국부터 조선시대까지 제주의 정치, 행정, 문화 중심지였다. 국가사적 제380호로 지정, 2002년 복원되면서 '탐라순력도' 등 옛 문헌을 토대로 그대로 구현되었다. 도민들이 기부한 기와가 5만여 장에 이른다. 수문장 교대의식 등의 이벤트가 상시 진행된다.

- 📍 제주시 관덕로 25
- ☎ 064-710-6714

관덕정



호텔에서
도보 10분

1448년 제주목사 신숙청이 세운 옛 제주 관청. 제주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건물이다. 병사 훈련용으로 지었으며, 서울의 광화문처럼 제주도민들의 광장 기능을 해왔다. '적벽대첩도' '십장생도' 등 기품 있는 실내 벽화도 좋은 볼거리이다.

- 📍 제주시 관덕로 19
- ☎ 064-728-8665

제주 동문 재래시장



호텔에서
도보 10분

제주에서 가장 오래된 상설전통시장. 제주의 모든 것을 판매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주의 다양한 수산물과 축산물, 건어물 등을 판매하며 오메기떡, 빙떡, 감귤생과일주스 등 제주만의 특색 있는 주전부리를 맛볼 수 있다.

- 📍 제주시 관덕로 14길 20
- ☎ 064-752-3001



새 대여제도 '분할급여대여' 출시... 3월 1일부터 시행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새로운 대여제도 '분할급여대여'를 3월부터 출시한다. 분할급여대여는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에 가입하려는 퇴직 회원이 보유 중인 대여를 퇴직급여금으로 상환하지 않고,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을 담보로 일정 기간 대여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동안 공제회원이 퇴직 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퇴직급여금을 정해진 기간 동안 분할해 수령 받는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에 가입하고 싶어도 보유 중인 대여가 있었다면 퇴직급여금에서 먼저 상환을 하고 남은 잔액으로 가입을 할 수 있어 가입금액이 적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분할급여대여 출시로 보유하고 있던 대여를 연장하면서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을 재직 기간 중 적절한 퇴직급여금 한도까지 가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분할급여대여의 연이율은 2.99%(변동금리)로 시중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한다. 중도상환수수료 또한 없다. 대개의 시중 은행이 대여의 중도 상환시 수수료를 부과하고, 수수료율 또한 0.7~1.5%로 무시 못 할 수준이다. 그러나 분할급여대여는 금전적 여유가 생길 시 즉시 상환해 이자비용과 중도상환수수료 모두 절약할 수 있다.

신청은 회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대여 잔액이 퇴직급여금의 70% 이내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한도 또한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가입 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분할급여금 가입 금액의 70% 이내에서 가능하다. 상환 기간은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가입 기간 미만(최장 10년)으로 설정 가능하며, 신청 기한은 퇴직일 이후 10영업일까지로 시·도지부 내방 및 우편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분할급여대여 제도 안내 및 상품 설계는 공제회 홈페이지 또는 회원콜센터(1577-34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 재직 중 납입한 장기저축급여를 퇴직 후 연금 방식으로 분할 수령하는 노후 대비 상품이다. 연복리 2.99%(3월 2일부터)의 높은 이율과 안정성, 0~3.46%의 저율과세를 자랑한다.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중도해지·운용수수료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부과하는 자금운용 비용이 없는 금융상품이다.

연이율 2.99%
중도상환수수료 無

퇴직급여금 1억원, 대여 잔액 7천만원이 있는 회원이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가입을 원하는 경우

시행前

3천만원까지

분할급여금 가입한도
=퇴직급여금 1억원- 대여 잔액 7천만원

분할급여대여

시행後

1억원까지

분할급여금 가입한도
=퇴직급여금 1억원
(대여 잔액 7천만원 → 분할급여대여로 연장)

목돈·퇴직생활급여, 분할급여금 3월부터 급여율(이율) 인상

한국교직원공제회는 목돈급여와 퇴직생활급여,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의 급여율을 3월 2일자로 상향 조정한다.

목돈급여는 2.40%, 퇴직생활급여의 경우 부가금·적립형은 2.40%, 확정연금·기간·종신·종신연금형은 2.99%로 인상된다. 또한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도 2.80%에서 2.99%로 급여율이 인상된다.

▶**급여율 인상 내역**

구분	현행	조정	
목돈급여	2.20%	2.40%	
퇴직생활급여	부가금형 적립형	2.20%	2.40%
	확정연금형 기간형 종신형 종신연금형	2.80%	2.99%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2.80%	2.99%

※ 연금리, 세전 이율

The-K SNS 기자단 7기 발대식

The-K SNS 기자단 7기 발대식이 2월 22일 서울 여의도 교직원공제회 본부에서 개최됐다. 7기 기자단은 공제회원 34명으로 구성됐으며, 발대식은 기자단 활동 안내 및 위촉장 수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The-K SNS 기자단은 10개월간 공제회가 운영하는 블로그와 SNS의 공제회 관련 콘텐츠와 교육, 생활문화, 여행 등 교육가족의 관심사를 반영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바이럴 활동을 하게 된다.

한편, 공제회는 블로그 '교육가족의 다락방'(blog.naver.com/ktcu_attic), 페이스북(www.facebook.com/withKTCU)과 인스타그램(www.instagram.com/withktcu) 계정을 운영하고 있다.



제2회 한국교직원미술대전 전시회 개최

3월 23일 ~ 4월 1일 서울 예술의 전당

제2회 한국교직원미술대전 전시회가 3월 23일부터 4월 1일까지 서울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제3~6전시실에서 열린다. 한국교직원미술대전은 한국교직원공제회가 교직원의 문화예술 활동을 독려하고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 및 자긍심 고취, 교육가족이 함께하는 문화교류의 기회 제공을 위해 기획한 행사로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한다.



지난해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제회원 작품 150여 점을 전시해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올해에는 작년보다 넓어진 전시실을 마련해 회원 작품 250여 점과 초대 작품 20여 점을 함께 전시함으로써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전시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며, 사회배려계층을 비롯한 보다 많은 사람이 문화예술프로그램을 누릴 수 있도록 무료 관람으로 진행한다.

전시 기간	2018년 3월 23일(금) ~ 4월 1일(일) 11:00 ~ 20:00 ※ 3월 26일(월) 휴관	전시 작품	회원 작품 250여 점, 초대작가 20여 점
		분야	한국화, 서양화, 공예 등
장소	서울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제3·4전시실(2층), 제5·6전시실(3층)	기타	학교(학생) 단체 관람 문의 1577-3400

**공제회와 함께하는
'문화라운지' 첫선 보여**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진행하는 문화복지행사, 공제회와 함께하는 '문화라운지'가 첫선을 보였다. 회원이 자녀와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지난 2월 10일 회원 가족 200여 명을 초청, 이화여자대학교 삼성홀에서 어린이 뮤지컬 '타닝메카드R 최후의 레이스' 공연을 관람한 것. 이번 행사는 회원 3074명이 신청해 3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행사당일 뮤지컬 공연을 즐기는 회원 가족 또한 열띤 반응을 보였다. 공



제회는 지난 2011년부터 The-K행복서비스를 통해 회원이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매직쇼, 파크콘서트, 에듀&Joy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018년 첫 전관행사 뮤지컬 '닥터 지바고'

서울 공연 초청 ... 3월 11일까지 신청

공제회와 함께하는 '문화라운지' 뮤지컬 관람 행사가 3월 31일 서울에서 펼쳐진다. 이번 공연은 러시아 혁명의 순간 운명적인 사랑을 그려낸 뮤지컬 '닥터 지바고'로 샤롯데씨어터에서 전관 행사로 진행된다. 참여를 원하는 회원은 공제회 홈페이지(www.ktcu.or.kr)에서 응모하면 된다.



- ▶ 공연개요
 - 일시 : 2018년 3월 31일 오후2시
 - 장소 : 서울 샤롯데씨어터
 - 참가비 : 1~4만원(좌석등급별 상이)
- ▶ 응모대상 : 교직원공제회 회원
- ▶ 초청인원 : 530명(1인당 입장권 2매 제공)
- ▶ 응모기간 : 3월 11일까지
- ▶ 당첨발표 : 3월 14일 홈페이지 게시
- ▶ 문의 : 1577-3400

S2B 전문강사-패널단 위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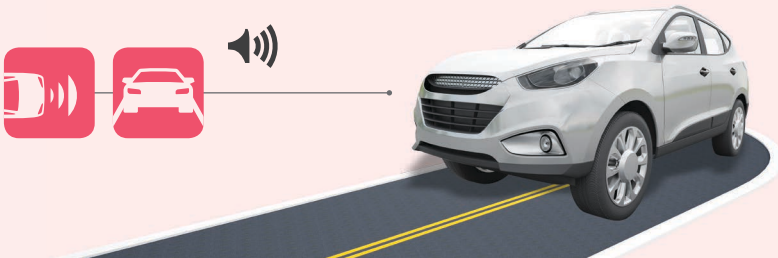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템 S2B(www.s2b.kr)는 '2018년도 S2B 전문강사-패널단 워크숍'을 지난 1월 25 ~ 26일 The-K호텔경주에서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을 올해 새롭게 위촉된 S2B 전문강사 47명과 초·중·고 및 시·도교육청 등의 계약담당자로 구성된 패널단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장 수여 등의 행사로 진행됐다. 이번에 위촉된 전문강사들은 올해 시행하는 S2B 관련 교육에 출강할 예정이며, 패널단은 S2B 시스템에 대한 모니터링을 담당한다.



The-K손해보험, '첨단안전장치 할인 특약'으로 보험료 할인

The-K손해보험의 자동차보험 에듀카는 '첨단안전장치 할인 특약'을 3월부터 새롭게 선보인다. 우선 차로이탈방지장치가 장착된 차량은 8% 할인, 전방충돌방지장치가 있는 차량은 3% 할인해준다. 두 가지 안전장치가 모두 있는 차량은 최대 11%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단, 출고 시 장치가 장착된 배기량 1000cc 초과 차량만 할인된다.

The-K손해보험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보험 가입을 원하는 고객을 위해 다양한 할인특약을 도입한 바 있다. ▶3년 무사고 최대 13% 할인 ▶운전자 범위를 1인이나 부부 한정으로 계속 유지 시 8% 할인 ▶블랙박스 장착 시 5% 할인 등 가입자의 특성에 따라 해당하는 특약을 선택하면 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 ☎ 전화 1566-3000



The-K지리산가족호텔로 떠나는 봄 축제 나들이

The-K지리산가족호텔이 인근 관광지 일원에서 개최되는 꽃 축제기간을 맞아 일선 회원들을 맞고 있다. 3월 17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구례산수유 꽃 축제', '광양 매화축제'를 시작으로 상춘객의 눈과 마음을 다 잡을 축제가 봄철내내 이어진다. 전남 구례 산동면에 위치한 The-K지리산가족호텔은 온천 시설을 갖춰 여행으로 쌓인 피로를 풀기 좋은 숙소다. 특히 온천수에는 천연 게르마늄 성분이 함유돼 피로와 스트레스 해소 등에 효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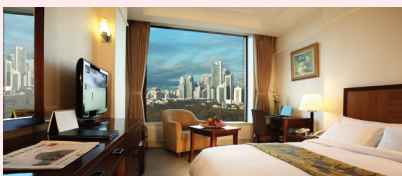
☎ 전화 061-783-8100



The-K호텔서울, 스프링 패키지 출시

The-K호텔서울은 다가오는 봄을 맞아 '스프링 패키지'를 5월까지 선보인다. ▶패키지 A는 객실 1박, 우첼로 조식 뷔페 2인 15만원 ▶패키지 B는 객실 1박, 더파크 석식 뷔페 2인 18만원 ▶패키지 C는 객실 1박, 서울랜드 자유이용권 2매 13만1000원이다. 자유이용권은 1만 3000원에 추가 구입할 수 있다. 모든 가격은 공제회원가로 패키지 이용 고객은 우첼로·더파크·델리에서 식음료를 15% 할인받을 수 있다. 또한 공제회원은 1층 우첼로에 위치한 전용 라운지에서 차와 다과도 즐길 수 있다. 라운지 운영 시간은 오후 3시부터 4시까지다. 양재동에 위치한 The-K호텔서울은 도심 속 휴식공간으로 이용객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 전화 02-571-8100



The-K호텔경주, 3월 프로모션 풍성

The-K호텔경주는 ' 스위트 스프링 패키지'를 오는 3월 30일까지 판매한다. 객실(양실) 1박, 조식 2인, 사우나 이용권 2인 구성으로 11만 5000원~13만원이다. 패키지 이용 고객에게 아메리카노 또는 샌드위치도 무료로 제공한다. 모든 가격은 공제회원가다.

졸업·입학 시즌을 맞아 3월 24일까지 매주 토요일 디너뷔페 이벤트를 진행한다. 졸업생·입학생을 동반한 4인 이상 고객 식사 시 해당 고객 1명에게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며, 3인 이하 시 해당 고객 1인의 식사를 50% 할인해준다. 일반 고객도 투숙객이면 10%, 사전 예약 시 10% 추가 할인된다.

한편, 커피숍 '아이리스'는 케이크 사전 예약 시 투숙객 30%, 일반 고객 20% 할인해주는 이벤트를 올해 말까지 진행한다. 대상 품목은 생크림 케이크 등 4종이며 중복 할인은 안 된다. 수령일 기준 2일 전까지 전화로 예약 가능하다.

☎ 전화 054-745-8100, 770-9111(아이리스)



The-K설악산가족호텔, 수학여행 선착순 접수

The-K설악산가족호텔은 올해 초·중·고교 대상 수학·테마여행 예약 접수를 선착순으로 받는다. 호텔이 위치한 설악산국립공원 일대는 수려한 자연풍경을 자랑하는 곳으로 낙산사, 통일전망대 등 인근에 체험학습 장소도 풍부해 현장체험학습 장소로 선호도가 높다. The-K설악산가족호텔은 최근 가상현실(VR) 전시 체험관을 오픈한 데 이어 레크레이션 준비를 위한 안무 연습실도 새로 단장해 단체 이용객의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학생 안전에 대비해 전 객실 방송 시스템 구축, CCTV 설치, 24시간 경비순찰을 하고 있다.

☎ 전화 033-639-8100



3월 즉석당첨이벤트

드디어 왔구나 봄봄봄



이벤트 기간 3월 1일~31일

오지 않을 것 같던 봄이
다시 살랑살랑 오네
커피 한잔 마시며
꽃길 걸으니 세상 좋구나



으..음
난 커피 같은 거
안 좋아한다



애,
너는 하나도
못 받았니?



3월이라 더 주고 싶어서 333개

333매

이디야 커피 상품권
5천원권(모바일)



333매

스타벅스
아메리카노Tall(모바일)



참여 방법 상단의 QR코드를 찍거나 www.thekmagazine.co.kr에 접속, '3월 즉석 당첨 이벤트'를 클릭합니다... 마음에 드는 상품 정보를 확인합니다... 성별과 연령을 체크합니다... 당첨 여부를 확인합니다... 당첨된 분에 한해 인적 사항을 기입합니다.

모든 독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기재 또는 미가입 시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기프티콘은 4월 중순 발송 예정입니다.

The-K INFORMATION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전국 교직원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1971년 특별법(법률 제2296호)으로 설립된 국내 유일의 교직원 복지기관입니다. 회원들의 풍요롭고 안정된 삶을 위하여 저축·보험·대여 등 각종 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8개 출자회사(호텔·손해보험·실버타운·상조·저축은행·골프장·복지포탈) 및 다양한 생활·문화 서비스를 통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Media

매거진, 뉴스레터, SNS
늘 회원과 함께하는 열린공간

The-K News Letter

한 달에 2회 최신정보를 받아보세요.



수신방법



행복서비스

교육가족의 풍요로운
문화생활을 지원하는
고품격 문화복지행사

문화·예술

문화라운지
(뮤지컬·콘서트 초청)

도서

북&JOY
(도서증정·저자강연)

스포츠

스포츠&JOY
(프로스포츠 관람)

영화

씨네&JOY
(영화예매권 증정)

취미·여가

컬처·에듀&JOY
(체험이벤트)
The-K 은빛동행
(퇴직회원 문화활동)

※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회원수

77만명



자산

32조 원



복지혜택

회원의 생애주기별 지급하는 다양한 부조와 기념품



재가입
축하기념품



신규회원
가입축하기념품



결혼기념품



고구좌
회원축하금



출산축하금



특별회원
가입축하기념품



상병급여금



유족급여금

예약 및 상담

숙박시설

교직원공제회 출자호텔(회원 할인)

The-K호텔 서울 | The-K호텔 경주 | The-K지리산가족호텔
02-517-8100 | 054-754-8100 | 061-783-8100

The-K설악산가족호텔 | 라마다프라자제주호텔
033-639-8100 | 064-729-8100

대명·한화리조트(법인회원권 이용)

전국 대명·한화리조트 숙박 및 시설 할인

예약 : 교직원나라(teachiworld.com) | 문의 : 1577-1382

레저·생활

소피아그린 CC(골프장) 031-887-8100

The-K서드에이지(실버타운) 055-530-8100

The-K손해보험 | The-K저축은행 | The-에다함상조
1566-3000 | 02-569-5600 | 1566-6644

티처웰(교직원 온라인 복지사이트) teachiworld.com | 1577-1382

S2B(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템) s2b.kr | 1577-3309

B2B(공공기관 전자조달시스템) s2b.teachiworld.com | 1566-5626

무료 세무상담(세무사)

서울 권병익 02-2634-4201 | 대구 최규대 053-756-1800

서진하 02-516-7117 | 부산 강연경 051-611-1125

인천 유명석 032-864-9922 | 광주 김영빈 062-371-9611

대전 주우성 042-253-6901

무료 법률상담(변호사)

서울 이규철 02-3016-35335 | 유수왕 02-2051-8881

김병직 02-592-7456

부산 이재호 051-506-7381 | 대구 박경환 053-751-6637

인천 박준범 032-866-5660 | 광주 이기연 062-226-6755

대전 광노준 042-369-6900 | 울산 이상구 052-272-6000

경기 이영직 031-386-0100 | 강원 유지한 033-255-5601

충북 윤경식 043-292-8008 | 전북 김대호 063-275-0006

경남 김상군 055-266-4747 | 제주 나인수 064-726-6605

회원예식장(예식장·폐백시설 무료 이용)

전국 6개 교직원공제회관 예식장

부산(부산역) 051-464-6767

광주(농성역) 062-352-1331

경기(수원시청역) 031-224-2030

강원(춘천터미널) 033-257-2921

전북(전주 서신동) 063-253-9790

대전(탄방동) 042-488-1111



우리가 생각하는 삶은
현재와 미래, 각각의 에피소드가 아니라
연결된 하나의 장편스토리

오늘의 전개와
내일의 클라이막스
언젠가의 엔딩 크레딧까지도

당신의 매 순간
The·K 한국교직원공제회가
함께하겠습니다

